

2022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서울시 장애인의 재난 상황에 따른 장애유형별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2022. 9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제출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귀하

이 보고서를 「서울시 장애인의 재난 상황에 따른 장애유형별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 9. 30.

- 연구기관 : 주식회사 필덤
- 책임연구원 : 김영웅 (주식회사 필덤,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이장일 (대한장애인체육회, 과장)
장윤경 (주식회사 필덤, 실장)
- 보조연구원 : 권세훈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센터, 사무국장)
김미선 (주식회사 필덤, 실장)
서혜영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양태경 (중랑구장애인연합회, 회장)
이영민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 자문위원 : 김현승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미영 (서울장애인복지관 사람중심서비스국장)
허명희 (서울 은평구 갈현1동장)

(요약문)

서울시 장애인의 재난 상황에 따른 장애유형별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주) 필덤 김영웅(책임연구원)

요 약

1.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도시와 안전」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시 장애인의 재난 상황에 따른 장애유형별 지원 정책을 다각도로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 재난 안전에 관련된 통계 및 언론 보도 바탕으로 실태 조사, 기발간된 매뉴얼을 바탕으로 한 문헌 조사, 기존 정책과 조례안 등을 분석하고, 심층 면접을 통해 장애당사자 관점의 다양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청취하여 대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4인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경과보고회 총 3회를 실시하여, 자문위원들의 고견을 연구에 반영하였다.

2. 2017년 행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화재 사망자수의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4.7배나 높다고 한다. 또한, 2019년 국립재활원 발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낙상으로 인한 사망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4.5배, 운수사고는 3.2배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낙상사고 사망의 경우 0~9세에서 16배, 10~19세에서 17배, 20~29세에서 24배까지 크게 차이 나고, 운수사고의 경우 20~69세까지 2.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종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가 비장애인보다 크고, 대응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실제로 장애인의 재난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 운영 중인 기존 정책과 대응책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매뉴얼도 부실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8월에 배포한 8종의 「장애인 재난대응 안내서」를 보면, 지진과 화재 등 2가지 재난 상황에 대해 '시각, 지적 자폐, 지체뇌병변, 그 외 장애인'의 4개 범주로만 나눠 대응 요령을 다루고 있다. 일부 장애유형별로 각기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한 이 간략화된 매뉴얼만으로는 많은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기타 여러 기관이 발간한 관련 매뉴얼도 존재하지만 내용에 편차가 큰 상황이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발간한 장애인 재난안전 안내자료 역시 '지체, 시각, 청각'에 관한 내용만 다루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 재난 안전에 관한 실태 분석과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 및 요구에 기반한 실질적인

목소리를 담아, 서울시 등록장애인이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더 나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했다. 각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연구하여, 각종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향상시키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정책 및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언하고자 한다.

4. 실태 조사

- 장애인 재난 안전 연구의 바탕이 되는 서울시 장애인 인구 통계와 장애유형별 장애 중증도 통계를 분석하였다.
- 장애인 재난 안전 실태를 살피기 위해 2020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해온 <장애인건강보건통계>를 분석하였다.
- 장애인 재난안전 실태를 살피기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발표해온 <장애통계연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해온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를 분석하였다.
- 장애인 재난 안전 실태 파악 및 각계각층의 대안을 수집하기 위해 장애인 분야 주요 언론사 2곳의 기사를 분석하였다.

[실태 조사 소결]

- 통계를 통해 그동안 장애인이 처해온 여러 재난 상황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매우 낮았고, 그로 인해 위험도 및 피해도가 더 컸음이 확인되었다.
- 장애인 재난 안전 사고, 통계, 실태에 관해 다룬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해결에 관한 시사점을 파악하고, 관련 단체의 입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녹아든 다양한 대안을 연구 결과에 반영하였다.

5. 선행연구 조사

- 장애인 재난 안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각종 매뉴얼, 서울시 정책, 서울시의회 조례를 분석하였다.
-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시각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등 개발 연구>
-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장애인의 위험>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발간한 <장애유형을 고려한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장애인 지원 유형별 재난 안전 가이드>
-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 서울시청의 재난 안전 행정 조직 및 업무분장 상황, 서울시 재난 안전 정책 현황, 서울시 장애인 재난 안전 정책 현황
- 서울시의회의 주요 재난안전 관련 조례 현황

[선행연구 조사 소결]

- 일부 장애 유형에 대한 정보에 한정되어 재난 안전 발생 시 특별한 대응책이 필요한 다른 장애 유형에 대한 매뉴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유형별, 재난상황별 매뉴얼을 다양화하여 대응력을 높이고, 이를 체득할 수 있는 정기적 훈련 및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당사자의 자구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재난 상황 시 구조 및 응급출동을 담당하는 기관 요원들(119 등)과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 및 직장의 동료, 지역사회 일원 등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심층 면접(FGI)

- 총 9개 장애 유형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서울시 거주 등록장애인 20인을 4개조로 나눠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 심층 면접에 참여한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언어장애 중복), 지적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뇌전증장애 등이다.
- 심층 면접의 질문이 된 재난상황 유형은 총 12개로 화재, 전기/정전사고, 가스사고, 단수, 감염병(코로나19), 응급상황, 폭염, 한파/대설, 황사/미세먼지, 지진/산사태/낙뢰, 태풍/폭우, 홍수/해일 등이다.

[심층 면접 소결]

-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요구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크게 4개로 분류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재난 안전 시설 및 장비 개선

- 고층 건물 지체장애인 대피시설 설치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대피소 및 방공호 이동대책 마련, 소형발전기 지원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손이 닿는 위치에 가스 밸브, 누전차단기 설치
- 화재감지기, 비상벨, 비상 조명등 설치. 투척형 소화기 및 산소마스크 보급, 구급 용품, 손전 등 비치
- 실내외 작동 응급호출기(버튼형, 목걸이형, 시계형, 뱃지형 등), 생활 안전 키트 지원
- 실내 야광 표식, 전자기기 점자 표시 부착

2)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 이용

- 보장구 이용 장애인의 안전한 이송과 간병 지원
- 응급상황 발생 시 경증 뇌병변장애인 장애인콜택시, 경증 시각장애인 나비콜 이용 허용
- 119 상담 시 수어통역사 화상통화 지원, 구급대원 수어 교육 시행
- 병원에 수어통역사 배치
- 지적장애인 대상 진단 및 치료과정에 대한 쉬운 설명 체계
-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약물 지원이 끊기지 않는 지원체계 구축
- 신장장애인의 안전하고 원활한 투석 치료를 위한 응급 의료체계 개편
- 뇌전증장애 119 신고 시 병원 후송보다 현장 지도를 통한 심신 안정화 우선

3) 재난 상황 발생 시 생활 지원

- 감염병 격리 중 의약품 및 식료품, 문화생활 지원
- 확진 시 전문 활동지원사 지원체계 구축
-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에 따른 고립 상황 발생 시 생필품 지원
- 대피소 또는 방공호 장애인 편의시설 법제화
- 냉난방비 지원 정책 시행
- 재난 상황을 겪은 후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심리치료 제공

4) 재난 안전 매뉴얼 보급 및 훈련

- 장애유형별 재난대응 및 응급처치 매뉴얼 보급 및 교육 실시
- 장애유형별 응급상황 대응법 119 DB화, 장애인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훈련 시행
- 지적장애인을 위한 쉬운 재난 안전 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7. 연구 결론

- 상기 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재난안전 정책 수립 및 조례 제정 등 장애인 재난 안전에 관한 정책 종합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더불어 장애인 재난 안전 정책협의체 구성, 장애인 재난 안전 의무교육, 재난 안전 실태점검, 당사자 정례 인식조사 및 시민 모니터링 시행을 제안하고자 한다.

〈 목 차 〉

I .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가. 연구의 필요성	1
나.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가. 연구의 범위	2
나. 연구의 방법	3
다. 자문위원회 구성	3
라. 보고회를 통한 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및 FGI 실시	4
II . 장애인 재난 안전실태	5
1. 서울시 장애인 인구 현황	5
가. 장애유형별 장애인 인구 현황	5
나. 장애유형별 심한 장애 장애인 인구 비율	6
2. 장애인 재난 안전에 관한 통계	8
가.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2020)	8
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보건통계(2016~2020)	26
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통계연보(2015~2021)	28
라.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2018~2020)	39
3. 장애인 재난 안전에 관한 언론 보도	45
가. 장애인 재난 안전에 관한 언론 보도	45
4. 장애인 재난 안전에 관한 설문조사	52
가. 장애인 재난 안전에 관한 설문조사	52
III . 기존 재난 안전 정책 현황	53
1. 서울시의회 재난 안전 관련 조례	53
가. 서울시의회 재난 안전 관련 조례 현황	53
나. 조례 주요 내용 및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보완점	55
2. 서울시 재난 안전 행정 및 정책	64
가. 서울시 재난 안전 행정 조직 및 업무분장	64
나. 서울시 재난 안전 정책 현황	66

다. 서울시 장애인 재난대응 안내	70
3.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매뉴얼	75
가. 시각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등 개발 연구 : 보건사회연구원	75
나. 장애인의 위험 : 보험연구원	76
다. 장애 유형을 고려한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77
라. 장애인 지원 유형별 재난 안전 가이드 : 한국장애인개발원	78
마.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 보건복지부	79
IV. 당사자 관점에서 본 문제점 및 제언 : FGI	80
1. 서울시 장애인 재난 안전실태에 관한 이용자 심층 면접	80
가. 심층 면접 진행 개요	80
나.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실태 및 문제 인식 분석	86
다.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 정책 개선안	101
라. 재난 상황별 종합 분석	108
V. 중장기 로드맵 제언	110
1. 서울시 장애인 재난 안전에 관한 로드맵	110
가. 장애인 재난 안전 정책협의체 구성 : 단기	110
나. 주거 및 교통, 생활환경 전반의 장애인 재난 안전 실태점검 : 단기	110
다. 장애인 재난 안전 의무교육실시 : 단기	110
라. 정례 당사자 인식조사 및 시민 모니터링 시행 : 중기	111
마. 장애인 재난 안전 조례 제개정 : 중장기	111
VI. 결론	112
1. 연구의 결론	112
가. 실내에서 발생하는 재난 상황 대응 시설	112
나. 장애인 당사자 및 지원 인력 대상 안전교육	121
다. 장애인을 위한 원활한 재난 안전 정보제공	122
라. 재난 상황 시 생활 지원	122
마. 기타 장애인 재난 안전대응 관련 정책	123
〈참고문헌〉	126

〈표 목 차〉

〈표 1. 자문위원회 명단〉	3
〈표 2. 2021 서울시 등록장애인 장애유형별 인구 현황〉	5
〈표 3. 2021 서울시 등록장애인 장애유형별 심한 장애 인구 비율〉	7
〈표 4.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8
〈표 5. 거주하는 주택의 재난 대비 여부〉	10
〈표 6. 재난에 대한 장애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국가가 개선해야 할 사항〉	11
〈표 7.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 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로 받은 지원 경험률〉	13
〈표 8.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 동안 방역 관련 어려움-정보 획득〉	15
〈표 9.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 동안 방역 관련 어려움-방역 장비 구비·이용〉 ·	16
〈표 10.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에 평소와 비교하여 일상생활 어려움-식료품 및 일상용품 구매〉	17
〈표 11.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에 평소와 비교하여 일상생활 어려움-경제활동〉	18
〈표 12.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에 평소와 비교하여 일상생활 어려움-사회서비스 이용〉	20
〈표 13.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에 평소와 비교하여 일상생활 어려움-의료이용〉	21
〈표 14.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에 평소와 비교하여 일상생활 어려움-교육활동〉	23
〈표 15.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에 평소와 비교하여 일상생활 어려움-외출〉 ·	24
〈표 16.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에 평소와 비교하여 일상생활 어려움-정서적 안정〉	25
〈표 17. 장애인 거주지역별 사망원인별 조사망률 : 서울시(2016 vs 2020)〉 ·	27
〈표 18.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 시·군·구 세부현황 / 서울시〉	30
〈표 19. 2015 장애통계연보, 응급알림 e서비스 설치 가구 현황 및 응급안전망 구축 현황(시범 선정 시군구 중 서울시 2개 구)〉	31
〈표 20. 2021 장애통계연보, 응급출동 현황〉	32
〈표 21. 2021 장애통계연보,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현황-연도별〉	34
〈표 22. 2021 장애통계연보,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현황-시설주체별〉 ·	36

〈표 23. 2021 장애통계연보,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현황〉	37
〈표 24. 2021 장애통계연보, 지적장애인 실종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연도별〉	38
〈표 25.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평상시 안전도〉	39
〈표 26.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사고 경험 및 종류〉	40
〈표 27.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실시 인지 및 경험 여부〉	42
〈표 28.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위급상황 발생 시 행동〉	43
〈표 29.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주거환경 평가〉	44
〈표 30. 장애인 재난 안전에 관한 주요 언론 보도 일람(2020.07~2022.06)〉	45
〈표 31. 서울시 장애인 재난 안전정책 필요성에 관한 욕구 설문조사〉	52
〈표 32. 서울시의회 재난 안전 관련 조례〉	53
〈표 33. 서울안전누리 장애인안전 매뉴얼〉	71
〈표 34. 심층 면접 참여자 및 장애 유형 현황〉	80
〈표 35. A조 심층 면접 개요〉	82
〈표 36. B조 심층 면접 개요〉	83
〈표 37. C조 심층 면접 개요〉	84
〈표 38. D조 심층 면접 개요〉	85
〈표 39. 장애인 재난 안전실태 및 문제 인식 분석을 위한 주요 재난 상황 설정 기준〉	86
〈표 40. 심층 면접 참여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 기본 인식 및 제언-지체장애〉	87
〈표 41. 심층 면접 참여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 기본 인식 및 제언-뇌병변장애〉	89
〈표 42. 심층 면접 참여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 기본 인식 및 제언-시각장애〉	91
〈표 43. 심층 면접 참여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 기본 인식 및 제언-청각장애〉	92
〈표 44. 심층 면접 참여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 기본 인식 및 제언-언어장애〉	94
〈표 45. 심층 면접 참여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 기본 인식 및 제언-지적장애〉	95
〈표 46. 심층 면접 참여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 기본 인식 및 제언-정신장애〉	97
〈표 47. 심층 면접 참여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 기본 인식 및 제언-신장장애〉	99
〈표 48. 심층 면접 참여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 기본 인식 및 제언-뇌전증장애〉	100
〈표 49. 장애인 재난 안전을 위한 개선 과제〉	108
〈표 50. 장애인 재난 안전을 위한 시계열적 과제 제시표〉	111
〈표 51.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건물 탈출설비 제안〉	114
〈표 52.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용품〉	120

〈그림 목 차〉

〈그림 1. 서울시청 조직도〉	64
〈그림 2. 서울시청 안전총괄실 조직도〉	65
〈그림 3.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조직도〉	66
〈그림 4. 서울안전누리 재난약자 행동요령, 장애인안전 코너〉	70
〈그림 5. 시각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등 개발 연구 표지〉	75
〈그림 6. 장애인의 위험 표지〉	76
〈그림 7. 장애 유형을 고려한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표지〉	77
〈그림 8. 장애인 지원 유형별 재난 안전 가이드 표지〉	78
〈그림 9.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표지〉	79
〈그림 10. A조 심층 면접 사진〉	82
〈그림 11. B조 심층 면접 사진〉	83
〈그림 12. C조 심층 면접 사진〉	84
〈그림 13. D조 심층 면접 사진〉	85
〈그림 14. 비장애인만 있는 일반 가정에서 재난경보기 작동 시〉	117
〈그림 1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 재난경보기 작동 시〉	11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2017년 행정안전부 보도자료¹⁾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화재 사망자 수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4.7배나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2019년 국립재활원 발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²⁾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낙상으로 인한 사망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4.5배, 운수사고는 3.2배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낙상사고 사망의 경우 0~9세에서 16배, 10~19세에서 17배, 20~29세에서 24배까지 크게 차이내고, 운수 사고의 경우 20~69세까지 2.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종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가 비장애인보다 크고, 대응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난은 크게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구분되며, 재난 상황에 따라 개인의 대응역량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고 환경적 대비체계가 얼마나 잘 마련되어 있느냐에 따라 피해의 정도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장애인의 경우 신체 및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자구력을 갖지 못해, 재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거나 환경적 대비체계가 충분치 못해 위험에 빠질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각종 재난 상황에 따른 이와 같은 장애인의 높은 사망률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재난 안전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시민의 일원으로 두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경각심을 느끼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상술한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은 재난 발생 시 최초 상황 인지 및 대응이 어려워 큰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밝히며,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세우겠다” 발표한 바 있다. 이어 2020년 8월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의 결실로 8종의 「장애인 재난대응 안내서」를 배포하였다.

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 강화된다’, 2017. 9. 24.

2)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컨퍼런스 자료집,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질환과 의료이용, 사망원인은?’, 2022. 4. 21.

그러나 지진과 화재 등 2가지 재난 상황에 대해 '시각, 지적자폐, 지체뇌병변, 그 외 장애인'의 4개 범주로 나뉘, 각기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한 간략화된 매뉴얼만으로는 아쉬운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밖에도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여러 기관이 발간한 각종 매뉴얼이 있으나 홍보가 부족하고 내용에 편차가 있으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발간한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4종의 안내자료 역시 '지체, 시각, 청각'에 관한 내용만 다루고 있어 그 외 유형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재난 안전 매뉴얼 부족도 문제지만, 장애인의 재난 상황 대응에 있어 월척어가 드나들 수 없는 대피소, 장애인의 구조 및 지원 시 고려해야 할 정보와 장비 부족, 장애유형별로 고려해야 할 응급처치 훈련 부재, 구조가 필요한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과 소통 등 기존 재난 안전 관련 정책 내에도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기관은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과 요구에 기반을 둔 실질적인 목소리를 담아내, 서울시 등록장애인이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장애 유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아울러 관련 실태조사 및 대안 모색을 통해 을 개선안을 제시하고, 각종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의 안전을 향상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정책 및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나. 연구의 목적

본 과업은 연구기관이 총 12개로 분류한 주요 재난 상황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상 규정된 15개 장애유형별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 개선점을 찾아내는 것을 기본으로 장애인의 재난 상황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주요 정책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목표로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안 제개정을 추진할 경우 입법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며 진행되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의 범위

서울시 등록장애인 당사자들과 인터뷰를 나눠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 대응역량을 파악하고, 개선 요구사항을 청취하였다. 아울러 장애가 있는 서울시민의 재난 안전 실태조사 및 개선안 도출을 위해, 관련 통계자료, 관계 부처와 기관, 지자체 등의 재난 안전 매뉴얼 등을 연구 범위로 하였다.

나. 연구의 방법

1) 통계 조사

- 가) 재난 안전에 관한 통계 통계청, 관계 부처와 기관 통계자료 조사
- 나) 장애인 재난 안전에 관한 통계 인용 언론 보도 조사

2) 문헌 조사

- 가) 서울시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주요 정책 조사
- 나) 재난 안전에 관한 서울시의회 조례 조사
- 다)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매뉴얼 실태조사

3) 심층 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 가) 목적: 서울시 등록장애인 당사자 관점의 재난 안전 정책 의견 청취
- 나) 대상: 서울시 등록장애인
- 다) 방법: 5명씩 2시간, 총 4회 대면 진행

다. 자문위원회 구성

본 과업 내용 및 진행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련 전문가 4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자문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성명 가나다순)

〈표 1. 자문위원회 명단〉

연번	성명	소속	직위	비고
1	김현승	서울시복지재단 정책팀	연구위원	
2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착수,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서면 검토
3	최미영	서울장애인복지관 사람중심서비스국	국장	

4	허명희	서울 은평구 갈현1동 주민센터	동장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서면 검토
---	-----	------------------	----	---------------------

라. 보고회를 통한 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및 FGI 실시

본 과업의 자문위원 4인이 참여한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진행하였으며, 서울시 등록장애인 당사자 20인이 참여한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보고회 중 2회(중간, 최종)는 비대면 줌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FGI 참가자 중 1인은 청각 및 언어 장애로 인한 개별적 요청으로 서면 인터뷰 방식으로 참여하였다. 각 보고회 및 FGI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보고회

가) 착수보고회 일시 : 2022년 6월 17일(금) 16:30~17:30
- 장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2

나) 중간보고회 일시 : 2022년 8월 11일(목) 18:30~19:30
- 장소 : 비대면 줌 회의

다) 최종보고회 일시 : 2022년 9월 26일(월) 16:00~17:00
- 장소 : 비대면 줌 회의

2)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가) A조 일시 : 2022년 8월 2일(화) 13:00~15:00
- 장소 : 서울 강서구 방화동 누리평생교육원 비채홀

나) B조 일시 : 2022년 8월 3일(수) 18:30~20:30
- 장소 : 서울 강서구 방화동 누리평생교육원 비채홀

다) C조 일시 : 2022년 8월 5일(금) 18:30~20:30
- 장소 : 서울 강서구 방화동 누리평생교육원 비채홀

라) D조 일시 : 2022년 8월 8일(월) 10:00~12:00
- 장소 : 서울 강서구 방화동 누리평생교육원 비채홀

Ⅱ. 장애인 재난 안전실태

1. 서울시 장애인 인구 현황

가. 장애유형별 장애인 인구 현황

연구의 기본 배경이 되는 서울시 등록장애인 인구 현황 파악을 위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장애유형별 장애인 인구 현황을 확인하였다. (정렬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규정 참조)

〈표 2. 2021 서울시 등록장애인 장애유형별 인구 현황〉

장애유형	남자(단위: 명)	여자(단위: 명)	계(단위: 명)
1. 지체	94,721	73,265	167,986
2. 뇌병변	23,842	16,457	40,299
3. 시각	24,740	16,480	41,220
4. 청각	32,918	26,796	59,714
5. 언어	2,434	982	3,416
6. 지적	16,724	10,606	27,330
7. 자폐성	5,788	1,067	6,855
8. 정신	8,470	8,130	16,600
9. 신장	10,871	7,430	18,301
10. 심장	654	354	1,008
11. 호흡기	1,578	565	2,143

12. 간	1,835	828	2,663
13. 안면	210	171	381
14. 장루·요루	1,830	1,129	2,959
15. 뇌전증	687	561	1,248
합계	227,302	164,821	392,123

나. 장애유형별 심한 장애 장애인 인구 비율

장애인등급제 개편 이후 기존 1~3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심한 장애)', 기존 4~6급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으로 재정의되었으며, 주요 재난 상황에서 심한 장애의 대응역량이 더욱 어려울 것이기에 장애유형별로 심한 장애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였다.

지적장애는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이므로 모두 '심한 장애'에 속하고, 자폐성장애는 국제질병사인분류 진단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100% '심한 장애'에 속한다. 정신장애의 경우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등급제 개정과 함께 100% 모두 '심한 장애'에 포함되었지만, 개정 당시 투렛장애, 기면증 등이 정신장애 범주에 '심하지 않은 장애'로 추가되어 '심한 장애'의 비율이 99.7%가 되었다. 호흡기장애는 폐를 이식받았거나 늑막루가 있는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되어, 여기에 속하는 87명에 의해 '심한 장애'가 95.9%가 되었다.

분석 결과 서울시 전체 등록장애인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37.7%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요 재난 상황에서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렬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규정 참조) '심한 장애'로 분류되는 경우 평상시 보장구 사용 및 반복적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는 있으나,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비장애인보다 자구력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표 3. 2021 서울시 등록장애인 장애유형별 심한 장애 인구 비율〉

장애 유형	심한 장애 비율 (단위: %, 명)	계(단위: 명)
1. 지체	19.1(32,092)	167,986
2. 뇌병변	59.1(23,847)	40,299
3. 시각	21.5(8,896)	41,220
4. 청각	21.7(12,977)	59,714
5. 언어	50.2(1,718)	3,416
6. 지적	100(27,330)	27,330
7. 자폐성	100(6,855)	6,855
8. 정신	99.7(16,561)	16,600
9. 신장	75.3(13,785)	18,301
10. 심장	77.5(782)	1,008
11. 호흡기	95.9(2,056)	2,143
12. 간	5.3(143)	2,663
13. 안면	46.7(178)	381
14. 장루·요루	10.2(302)	2,959
15. 뇌전증	27.1(339)	1,248
합계	37.7(147,861)	392,123

2. 장애인 재난 안전에 관한 통계

가.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2020)

보건복지부에서 198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실태조사>는 「심신장애 자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부터 법률 제8조(조사)에 따라 기간의 지정 없이 장관의 역할로 최초 규정되었으며, 1989년 법률 명칭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개정이 이루어지며 법률 제18조(조사)로 이동되어 5년마다 시행하도록 해왔다. 이후 2007년 법률 개정 때 조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조정되었고, 11차 조사인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가 가장 최근 진행된 조사내용을 발간한 자료이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일반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7,025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진행하는 심층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내용 가운데 ‘주거 및 재난 안전’에 대한 통계가 담겨 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냐는 질문에 보통 이상이라 응답한 비율(보통+안전+매우 안전)이 88.2%로 대부분에 달했다. 반대로 10명 중 1명은 위험 또는 매우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및 사고에서 가장 위험을 느끼는 장애 유형은 장애 특성상 운동기능에 제약이 많아 재난대응, 대피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뇌병변장애가 16.0%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으며, 자폐성장애가 15.3%로 그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위험을 가장 적게 느끼는 장애 유형은 장애와 운동기능에 상관관계가 없는 간장애가 2.4%로 가장 낮게 나왔다.

<표 4.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구분(단위: %)	매우 위험	위험	보통	안전	매우 안전
전체	2.0	9.8	40.7	42.6	4.9
지체장애	1.6	9.3	41.4	43.0	4.7

뇌병변장애	4.7	11.3	39.4	41.2	3.2
시각장애	1.7	11.4	36.3	44.4	6.2
청각장애	0.9	10.6	41.9	41.8	4.8
언어장애	0.6	9.9	42.1	40.2	7.2
지적장애	4.3	9.2	38.4	41.5	6.6
자폐성장애	3.3	12.0	32.7	43.9	8.1
정신장애	1.2	8.5	49.7	38.9	1.7
신장장애	0.5	8.7	40.7	44.5	5.5
심장장애	1.4	6.8	40.1	45.3	6.4
호흡기장애	4.0	8.7	39.4	44.7	3.1
간장애	-	2.4	37.2	53.3	7.0
안면장애	-	5.9	36.3	50.3	7.6
장루·요루장애	-	7.8	41.6	44.5	6.0
뇌전증장애	1.1	12.3	44.2	40.5	1.9

2)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재난 대비 여부는?

재난 시 행동요령을 알고 있고, 스스로 대피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장애와 운동기능에 상관관계가 없는 간장애가 91.2%와 9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구력을 발휘하기에 어려움이 큰 자폐성장애가 각 47.2%와 44.5%로 가장 낮게 집계되었다. 그러나 재난 시 조력자가 있다는 응답은 장애와 운동기능에 상관관계가 없는 간장애가 가장 높은 85.3%로 나타났고, 일

반적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정신장애가 67.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안전용품을 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67.7%가 '있다'고 응답해, 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거주하는 주택의 재난 대비 여부〉

구분(단위: %)	재난 행동요령 알고 있다	재난 시 스스로 대피 가능하다	재난 시 대피 도와줄 조력자가 있다	재난에 대비한 소화기, 경보기 등 안전용품이 있다
전체	75.8	74.2	71.1	67.7
지체장애	81.9	80.1	71.0	70.3
뇌병변장애	66.8	51.4	68.1	63.2
시각장애	81.2	79.8	75.9	69.3
청각장애	73.2	74.9	67.7	62.7
언어장애	69.3	68.4	70.9	70.0
지적장애	52.0	58.0	71.9	64.4
자폐성장애	47.2	44.5	81.3	73.3
정신장애	66.9	73.8	67.4	59.6
신장장애	84.9	82.6	75.9	72.2
심장장애	93.6	84.0	82.6	74.7
호흡기장애	84.5	75.9	75.4	70.8
간장애	91.2	92.9	85.3	86.7
안면장애	87.7	87.6	75.8	68.2

장루·요루장애	81.9	81.7	80.0	73.3
뇌전증장애	80.8	77.7	69.0	64.1

3) 국가가 개선해야 할 사항은?

주요 재난 상황에 있어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국가가 개선해야 할 가장 시급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재난 대비한 시설·장비 지원’을 선택한 응답이 24.3%로 가장 높았다. 통상 재난대비 시설과 장비는 비상급수시설,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방화벽, 완강기, 소화기, 소화전, 산소마스크, 손전등 등을 의미하는데, 심장장애(29.1%)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심장제세동기의 적재적소 비치가 절실히 필요한 까닭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장애특성 고려한 재난대응 지침 및 매뉴얼’에 대한 응답은 간장애(24.3%), 안면장애(23.0%), 장루·요루장애(22.9%) 순으로 높게 나왔다. 실제 통용되는 재난 안전 매뉴얼은 지체, 시각, 청각장애 등을 위한 내용에 편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장애 유형에서 매뉴얼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 자구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자폐성장애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재난 상황 실시간 정보제공’과 ‘긴급사회서비스(돌봄) 지원’에서 각 14.2%와 13.2%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긴급사회서비스(돌봄) 지원’에 대해서는 소통에 불편이 큰 언어장애도 자폐성장애와 같은 비율인 13.2%로 동률을 보였다. ‘소득·고용·주거 등 사후 생활안정 지원’을 희망하는 비율은 호흡기에 의존해 경제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큰 호흡기장애에서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 재난에 대한 장애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국가가 개선해야 할 사항〉

구분(단위 : %)	장애특성 고려한 재난대응 지침 및 매뉴얼 개발 보급	장애특성을 고려한 재난 대비 시설 장비 지원	장애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 훈련	장애특성을 고려한 재난 상황 관련 실시간 정보제공	소득고용 주거 등 사후 생활안정 지원	긴급 사회서비스(돌봄) 지원	재난에 따른 심리·정서적 어려움 지원

전체	18.3	24.3	14.6	10.6	18.0	9.4	4.9
지체장애	17.9	25.0	14.4	10.8	18.6	8.4	4.9
뇌병변 장애	20.5	24.8	12.4	10.5	17.4	10.4	4.0
시각장애	15.6	26.5	16.5	10.5	14.9	9.6	6.4
청각장애	19.3	24.5	13.2	9.9	18.2	10.5	4.4
언어장애	18.6	23.8	10.9	10.1	16.9	13.2	6.5
지적장애	19.2	21.7	16.8	8.8	18.4	11.5	3.6
자폐성 장애	16.8	15.8	24.6	14.2	12.2	13.2	3.1
정신장애	16.4	16.6	16.1	13.1	21.1	9.8	6.8
신장장애	19.9	24.8	14.2	11.2	17.3	7.8	4.9
심장장애	22.3	29.1	8.6	12.1	16.6	5.6	5.7
호흡기 장애	16.8	25.7	13.8	7.8	24.6	8.9	2.4
간장애	24.3	16.8	12.3	11.9	19.6	6.6	8.4
안면장애	23.0	18.0	19.3	13.2	23.0	1.5	2.1
장루·요루 장애	22.9	27.7	13.7	10.4	13.7	7.2	4.5
뇌전증 장애	19.5	22.5	20.1	9.1	18.5	7.9	2.3

4) 코로나19에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추가로 받은 지원 경험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당사자에게 주는 추가 지원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방역물품 지원 경험 응답이 42.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생필품 지원 경험 4.9%, 장애인활동지원 특별급여 지원 경험 2.6%, 사회복지시설이나 특수학교의 긴급 돌봄 지원 경험 1.7%, 온라인 학습보조기기 지원 경험 1.4%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특수학교 긴급 돌봄’ 지원 경험은 자폐성장애 9.7%, 지적장애 5.4%, 뇌병변장애 3.1%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활동지원 특별급여’ 지원 경험도 자폐성장애 11.8%, 지적장애 8.1%, 뇌병변장애 3.7% 순으로 나타나 세 가지 장애 유형의 지원 경험이 도드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락·물품 지원배달(생필품)’ 지원 경험은 지적장애 11.6%, 뇌전증장애 7.6%, 호흡기장애 7.1% 순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교육을 위한 학습보조기기 지원’ 지원 경험은 자폐성장애 3.8%에 이어 언어장애, 지적장애, 심장장애가 모두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 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로 받은 지원 경험률〉

구분(단위: %)	사회복지시설·특수학교 긴급 돌봄	장애인활동지원 특별급여	도시락·물품 지원배달 (생필품)	방역물품 지원 (마스크, 손소독제 등)	온라인 교육을 위한 학습보조기기 지원	기타
전체	1.7	2.6	4.9	42.5	1.4	1.5
지체장애	1.0	1.7	3.6	40.4	1.2	1.6
뇌병변장애	3.1	3.7	6.0	45.9	1.8	0.7
시각장애	1.4	2.9	4.6	40.5	1.5	1.5
청각장애	1.5	1.6	4.5	41.6	1.4	1.0
언어장애	2.5	1.8	4.4	38.1	2.3	2.4
지적장애	5.4	8.1	11.6	53.2	2.3	1.3

자폐성 장애	9.7	11.8	5.2	39.4	3.8	1.3
정신장애	0.8	2.1	7.0	49.9	1.5	1.4
신장장애	0.4	1.2	4.9	42.1	-	3.9
심장장애	2.6	1.8	3.7	35.9	2.3	-
호흡기 장애	1.7	1.0	7.1	43.5	-	-
간장애	-	0.6	2.0	30.5	-	2.2
안면장애	2.6	-	5.6	38.8	0.9	-
장루·요루 장애	0.5	-	3.2	35.5	-	1.6
뇌진증 장애	3.7	0.9	7.6	44.5	0.9	2.6

5)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 방역 관련 어려움은?

가) 정보 획득

감염병과 같이 개인 방역이 가장 시급한 상황에서 정보 획득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감염병을 예방하는 방법, 감염의 경로, 발병 시의 주요 증상과 대응 및 치료 방법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만 있다면,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 질문에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컸다는 답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평상시 건강체크를 위해 병원 진료를 자주 다니는 간장애(73.5%), 투석에 의존하는 신장장애(65.1%), 쉬운 설명이 필요한 자폐성장애(59.1%)에서 정보 획득에 '상당히 어려웠음'을 토로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 동안 방역 관련 어려움-정보 획득〉

구분(단위: %)	상당히 어려웠음	다소 어려웠음	어려움 없었음
전체	54.8	40.1	5.0
지체장애	55.2	40.3	4.5
뇌병변 장애	50.0	43.9	6.1
시각장애	56.7	38.5	4.8
청각장애	56.3	37.6	6.1
언어장애	57.9	37.7	4.5
지적장애	50.3	42.4	7.2
자폐성 장애	59.1	38.1	2.8
정신장애	48.8	47.7	3.5
신장장애	65.1	31.2	3.7
심장장애	56.2	42.8	1.0
호흡기 장애	47.7	46.6	5.7
간장애	73.5	26.0	0.6
안면장애	56.1	41.4	2.6
장루·요루 장애	51.9	44.3	3.8
뇌전증 장애	58.6	37.7	3.7

나) 방역 장비 구비·이용

감염병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방역 장비 구입과 이용에도 ‘상당히 어려웠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0%, ‘다소 어려웠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8%로 대부분을 차지해, 감염병 확산 시기에 장애인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응책인 방역 장비 공급체계에 근본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9.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 동안 방역 관련 어려움-방역 장비 구비·이용〉

구분(단위: %)	상당히 어려웠음	다소 어려웠음	어려움 없었음
전체	54.0	39.8	6.1
지체장애	54.2	40.0	5.8
뇌병변 장애	49.5	42.6	7.9
시각장애	54.3	39.8	5.9
청각장애	56.1	36.8	7.0
언어장애	56.0	40.1	3.9
지적장애	51.8	42.4	5.8
자폐성 장애	57.7	35.9	6.4
정신장애	48.1	45.8	6.1
신장장애	62.7	31.5	5.8
심장장애	57.6	41.3	1.0
호흡기 장애	50.4	43.6	6.0

간장애	71.2	27.1	1.7
안면장애	56.2	41.7	2.1
장루·요루 장애	50.5	45.7	3.8
뇌전증 장애	60.1	33.9	6.1

다) 식료품 및 일상용품 구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식료품과 생필품 구매에 얼마나 어려움이 컸는지에 대한 질문에 어려움이 있다(‘상당히 어려웠음+다소 어려웠음’)고 응답한 장애 유형은 간장애(96.7%), 심장장애(95.4%), 신장장애(93.6%)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에 평소와 비교하여 일상생활 어려움-식료품 및 일상용품 구매〉

구분(단위: %)	상당히 어려웠음	다소 어려웠음	어려움 없었음
전체	57.5	33.3	9.2
지체장애	59.8	32.5	7.7
뇌병변 장애	49.2	35.5	15.3
시각장애	58.0	32.8	9.2
청각장애	58.3	34.0	7.7
언어장애	55.3	33.3	11.3
지적장애	52.6	34.1	13.3

자폐성 장애	54.8	31.2	14.0
정신장애	48.0	41.6	10.4
신장장애	65.7	27.9	6.4
심장장애	60.3	35.1	4.6
호흡기 장애	51.0	39.8	9.2
간장애	77.9	18.8	3.3
안면장애	68.5	21.8	9.7
장루·요루 장애	54.9	37.3	7.8
뇌전증 장애	64.0	26.8	9.1

라) 경제활동

비대면, 언택트 시대로의 전환은 장애인의 경제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고스란히 장애인 가정의 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후 경제활동에 관한 질문에서 전체 82.3%가 어려움(‘상당히 어려웠음+다소 어려웠음’)을 느꼈다고 대답하였으며, ‘상당히 어려웠음’의 응답은 간장애(68.7%), 신장장애(68.6%), 안면장애(54.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에 평소와 비교하여 일상생활 어려움-경제활동〉

구분(단위: %)	상당히 어려웠음	다소 어려웠음	어려움 없었음
전체	51.6	30.7	17.7

지체장애	53.7	28.4	18.0
뇌병변 장애	43.2	35.6	21.2
시각장애	52.9	30.2	16.9
청각장애	51.8	33.2	15.0
언어장애	39.0	37.7	23.4
지적장애	41.4	40.1	18.5
자폐성 장애	44.8	28.7	26.4
정신장애	44.5	34.8	20.7
신장장애	68.6	20.3	11.1
심장장애	53.1	27.0	19.9
호흡기 장애	41.3	37.8	20.9
간장애	68.7	21.4	9.9
안면장애	54.1	23.5	22.5
장루·요루 장애	48.9	38.3	12.8
뇌전증 장애	50.1	29.0	20.9

마) 사회서비스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문에 ‘상당히 어려웠음’의 응답 순서는 간장애 (70.7%), 신장장애(64.7%), 안면장애(60.4%) 차례였고, ‘다소 어려웠음’

이라고 응답한 장애 유형은 장루·요루장애(40.7%), 언어장애(40.5%), 지적장애(40.2%) 순이었다.

〈표 12.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에 평소와 비교하여 일상생활 어려움-사회서비스 이용〉

구분(단위: %)	상당히 어려웠음	다소 어려웠음	어려움 없었음
전체	52.3	34.6	13.1
지체장애	54.6	34.0	11.3
뇌병변장애	43.7	38.1	18.2
시각장애	58.0	29.9	12.1
청각장애	53.6	34.3	12.1
언어장애	42.9	40.5	16.6
지적장애	41.6	40.2	18.2
자폐성장애	40.1	38.7	21.2
정신장애	42.4	39.5	18.2
신장장애	64.7	24.9	10.4
심장장애	59.4	34.2	6.4
호흡기장애	47.1	39.8	13.1
간장애	70.7	24.6	4.7
안면장애	60.4	31.7	7.9
장루·요루장애	50.1	40.7	9.2

뇌전증 장애	55.6	27.8	16.6
-----------	------	------	------

바) 의료서비스 이용

지진, 태풍 같은 자연재해와 단수, 정전 같은 생활 재난은 적절한 대피로 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감염병은 철저한 방역체계가 작동해도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항상 원만한 의료기관 이용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동의 제약이 뒤따르는 장애 유형과 잦은 병원 이용이 필요하나 감염병 검열 체계로 부득이 장애 관련 치료가 지연되는 장애 유형의 경우, 감염병 확산이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늘어나게 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 평소와 비교해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6.4%가 어려움(‘상당히 어려웠음+다소 어려웠음’)을 표시하였고, 그 가운데 ‘상당히 어려웠음’이라고 응답한 장애 유형은 부정기적으로 발작 증상을 겪는 뇌전증장애(57.5%)와 병원 방문이 잦은 간장애(56.2%), 안면장애(55.6%)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에 평소와 비교하여 일상생활 어려움-의료이용〉

구분(단위: %)	상당히 어려웠음	다소 어려웠음	어려움 없었음
전체	48.5	37.9	13.6
지체장애	50.6	36.8	12.6
뇌병변 장애	36.2	44.1	19.6
시각장애	50.4	36.2	13.4
청각장애	49.5	39.4	11.1
언어장애	44.4	41.5	14.1
지적장애	47.3	35.8	16.9

자폐성 장애	43.8	37.1	19.1
정신장애	45.0	43.2	11.8
신장장애	53.8	32.7	13.5
심장장애	48.3	42.4	9.4
호흡기 장애	43.5	43.4	13.2
간장애	56.2	30.8	13.0
안면장애	55.6	35.4	9.0
장루·요루 장애	44.2	40.8	15.0
뇌진증 장애	57.5	30.7	11.8

사) 교육 활동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른 확진자 격리, 이동제한 등은 학생들에게 등하교에 제약을 줘, 온라인 수업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반 등을 통해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인 학생들은 화상 채팅 및 동영상 강의에만 의존하는 온라인 수업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의 경우 오디오를 청취할 수 없으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의 경우 화면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반복적인 행동 교육이 필요한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은 효용성이 적어, 기본적인 교육을 진행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기간 평소에 비해 교육 활동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 중 어려움(‘상당히 어려웠음+다소 어려웠음’)을 나타낸 비율이 88.9%를 차지한 이유이다.

〈표 14.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에 평소와 비교하여 일상생활 어려움-교육 활동〉

구분(단위: %)	상당히 어려웠음	다소 어려웠음	어려움 없었음
전체	56.4	32.5	11.0
지체장애	61.5	30.9	7.6
뇌병변장애	44.8	37.4	17.7
시각장애	61.7	29.8	8.5
청각장애	57.8	31.2	11.0
언어장애	51.3	33.5	15.2
지적장애	39.1	39.8	21.0
자폐성장애	33.7	32.5	33.7
정신장애	48.9	40.7	10.3
신장장애	72.9	22.3	4.7
심장장애	50.0	35.4	14.6
호흡기장애	49.0	34.7	16.2
간장애	66.1	33.3	0.5
안면장애	73.2	24.8	2.0
장루·요루장애	57.7	37.8	4.5
뇌전증장애	51.8	31.1	17.1

아) 외출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에 평소보다 외출에 있어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39.7%가 ‘상당히 어려웠음’이라고 응답했으며, 40.4%가 ‘다소 어려웠음’이라고 응답했다.

〈표 15.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에 평소와 비교하여 일상생활 어려움-외출〉

구분(단위: %)	상당히 어려웠음	다소 어려웠음	어려움 없었음
전체	39.7	40.4	19.9
지체장애	42.4	40.2	17.4
뇌병변장애	28.2	39.9	31.9
시각장애	41.3	38.6	20.1
청각장애	40.3	41.9	17.9
언어장애	39.9	44.5	15.6
지적장애	35.3	40.4	24.3
자폐성장애	29.1	37.7	33.2
정신장애	35.0	47.1	17.9
신장장애	45.7	35.6	18.6
심장장애	41.5	42.9	15.6
호흡기장애	33.9	46.0	20.1
간장애	54.8	33.9	11.3

안면장애	53.8	30.6	15.5
장루·요루 장애	38.6	42.8	18.6
뇌전증 장애	44.0	37.0	19.1

자) 정서적 안정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의 중요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는 최근엔 재난 예고 상황 및 재난 이후의 정서적 안정, 특히 재난을 겪고 난 이후에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본 연구를 진행하며 개최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도 재난을 겪고 난 이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한 참여자도 다수 있었는데,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에 정서적 안정에 어려움을 느꼈는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에도 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41.9%가 정서적 안정 부분에 있어 ‘상당히 어려웠음’이라고 응답했으며, ‘다소 어려웠음’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4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에 평소와 비교하여 일상생활 어려움-정서적 안정〉

구분(단위: %)	상당히 어려웠음	다소 어려웠음	어려움 없었음
전체	41.9	42.5	15.5
지체장애	44.2	41.5	14.3
뇌병변 장애	32.0	44.7	23.3
시각장애	46.3	39.7	14.0
청각장애	43.1	44.5	12.4
언어장애	39.2	46.6	14.2
지적장애	35.6	45.7	18.6

자폐성 장애	34.7	42.1	23.2
정신장애	34.7	45.1	20.2
신장장애	48.5	36.0	15.5
심장장애	39.3	45.8	14.9
호흡기 장애	36.9	49.7	13.4
간장애	47.9	43.6	8.5
안면장애	41.4	48.7	9.9
장루·요루 장애	38.2	47.4	14.5
뇌진증 장애	40.1	42.5	17.4

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보건통계(2016~2020)

주요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이 직면하는 위험도를 분석하기 위해, 장애인의 사망원인 가운데 재난 상황과 직간접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는 사망원인별 조사 망물을 확인하였다.

사망원인 중 화재와 관련성이 높은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은 2016년 인구 10만 명당 1.8명이었던 수치가 2020년 2.8명으로 55.5%, 전염성 질병과 관련된 ‘바이러스간염’은 3.6명에서 4.8명으로 33.3%, 사고와 관련된 ‘낙상(추락)’은 19.2명에서 24.1명으로 25.5%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염성 질병과 관련된 ‘인플루엔자’의 경우 1.3명에서 3.3명으로 2.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에 반해 사고와 관련된 ‘불의의 익사 및 익수’는 2.0명에서 1.3명으로 35.0%, ‘운수사고(교통사고)’는 14.3명에서 12.2명으로 1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다소 일반적이지 않은 용어인 ‘악성신생물’은 암을 의미한다.)

〈표 17. 장애인 거주지역별 사망원인별 조사망률 : 서울시(2016 vs 2020)〉

순위	2016년		2020년	
	사망원인	조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	사망원인	조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
1	악성신생물	573.8	악성신생물	579.7
2	뇌혈관 질환	341.4	뇌혈관 질환	317.4
3	심장 질환	251.5	심장 질환	281.9
4	폐렴	173.4	폐렴	194.9
5	당뇨병	122.8	당뇨병	146.7
6	고의적 자해(자살)	72.5	알츠하이머병	64.6
7	만성 하기도 질환	57.5	만성 하기도 질환	56.9
8	간 질환	47.2	고의적 자해(자살)	56.7
9	기타 세균성 질환	47.2	기타 세균성 질환	56.2
10	고혈압성 질환	41.6	고혈압성 질환	47.8
11	알츠하이머	32.9	간 질환	45.0
12	결핵	22.7	낙상(추락)	24.1
13	낙상(추락)	19.2	결핵	14.5
14	운수사고	14.3	운수사고	12.2
15	사구체 및 세뇨관-간질 질환	9.4	장 감염 질환	8.1

16	장 감염 질환	7.9	정신활성 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7.1
17	정신활성 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5.9	위 및 십이지장궤양	5.8
18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5.1	사구체 및 세뇨관-간질 질환	5.6
19	빈혈	4.9	나머지 특정감염	5.3
20	바이러스간염	3.6	바이러스간염	4.8
21	위 및 십이지장궤양	3.6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4.6
22	나머지 특정감염	3.1	빈혈	4.1
23	중추신경계통의 바이러스 감염	2.3	인플루엔자	3.3
24	불의의 익사 및 익수	2.0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2.8
25	가해(타살)	1.8	급성 류마티스열 및 만성 류마티스 심장 질환	2.5
26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1.8	죽상경화증	2.0
27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1.5	가해(타살)	1.3
28	인플루엔자	1.3	불의의 익사 및 익수	1.3
29	죽상경화증	1.0	영양실조	1.0
30	급성 류마티스열 및 만성 류마티스 심장 질환	0.8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1.0

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통계연보(2015~2021)

주요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이 직면해온 안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연례 발간한 <장애통계연보>를 참조하여, ‘장애인 응급안전망, 안전시설, 보호구역’ 등 관련 정책의 통계적 변화를 확

인하였다. 장애인 재난 안전에 관한 통계 항목은 <장애통계연보>를 처음 발간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장애인 응급안전망, 안전시설, 보호구역’ 등 3가지로 조사되어 오다가, 2021년부터 ‘실종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항목이 추가되었다. 참고자료 내용 중 서울시 통계를 별도 구분한 경우 서울시 자료를 전국 합계와 함께 발췌해 비교 정리하였으며, 그 외 조사 자료는 전국에 해당하므로 수치 이해에 주의가 필요하다.

1) 장애인 재난 및 안전 현황

가) 장애인 응급안전망

<장애통계연보>의 ‘장애인 응급안전망’ 항목에는 2015년 첫 발간 시 ‘장애인 응급알림 e서비스 설치 현황’ 자료를 첫 번째 자료로 수록한 바 있으나 한 차례에 그쳤고, 2015부터 2021년까지 ‘응급출동 현황’만 집계해 지속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2015 장애통계연보>에만 수록된 ‘중증장애인 응급알림 e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2013년 11월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시작된 정책으로 중증장애인 가정에 가스·화재·활동 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 정보를 지역센터로 전송해 모니터링 하는 서비스이다. 화재나 가스 등 응급사고가 발생하면 응급버튼을 통해 소방서와 지역센터, 가족에게 알려 신속하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도움으로써, 주요 재난 및 위험 상황에 취약한 중증장애인이 화재 등 응급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전국 222개 기관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장애인 지원기관은 124개로 서울시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19개는 모두 장애인 지원기관으로만 지정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18.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 시·군·구 세부현황 / 서울시〉³⁾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기관명
서울(19)	강남구	GoodJob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동구	해뜨는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북구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서구	강서길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구	광진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구로구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원구	(사)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
	도봉구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동대문구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포구	(사)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마포구지회
	서초구	아이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동구	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지원센터
	성북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관
	송파구	송파구 방이복지관
	양천구	사랑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영등포구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3) 보건복지부, 2021년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

	용산구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은평구	사단법인초록
	종로구	(사)노란들판

‘중증장애인 응급알림 e서비스’는 사업 초기 수요조사에 따라 전국에서 20개 시군구가 모집되었으며, 서울시에서는 강서구와 마포구가 선정되었다. 2013년 첫 시범사업 결과를 담은 〈2015 장애통계연보〉 자료에서 서울시 자료만 인용한 것으로 시범사업 당시 서울의 설치율은 전국 평균인 86.3%에 크게 못 미치는 51.5%의 낮은 수치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생활 인프라와 편리한 교통체계, 편리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같은 ‘환경적 이점’이 작용했거나, 주관기관의 홍보 부족,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의 관심 부족과 같은 ‘행정적 한계’, 서울시 장애인 당사자의 낮은 관심과 참여율 저조가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근거자료는 부재한 상황이다.

〈표 19. 2015 장애통계연보, 응급알림 e서비스 설치 가구 현황 및 응급안전망 구축 현황 (시범 선정 시군구 중 서울시 2개 구)〉

구분 (단위: 건, %)	응급알림 e서비스 설치 현황			지역사회 자원 발굴 현황							
	사업량 (목표량)	설치 건수	설치율	서비스 대상자 인원	응급상황 연계현황(오프라인)						
					계	이웃 주민	동/ 반장	가족	활동 보조 인	기타	
총계(20)	2,207	1,906	86.3	1,356	1,792	88	63	857	692	130	
서울(2)	강서구	270	165	61.1	109	134	-	6	37	91	-
	마포구	162	68	42.0	45	63	1	-	40	22	-
	계	432	233	51.5	154	197	1	6	77	113	-

‘응급출동 실적’에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화재, 가스, 응급호출, 119 호출’의 4가지 유형에 따른 월별 통계 데이터가 있으며, 장애인의 응급상황에 따른 출동 건수는 2018년부터 1천여 건 이상, 그 가운데 ‘119 호출’이 1천여 건 수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0. 2021 장애통계연보, 응급출동 현황〉

구분(단위: 건)	합계	급상황				
		화재	가스	응급호출	119호출	
2013년	25	2	-	7	16	
2014년	339	53	-	99	187	
2015년	509	28	1	69	411	
2016년	448	67	7	66	308	
2017년	966	78	2	63	823	
2018년	1,353	78	4	58	1,213	
2019년	1,331	92	-	64	1,175	
2020년	계	1,182	67	2	49	1,064
	1월	133	14	1	3	115
	2월	90	3	-	4	83
	3월	85	4	-	3	78
	4월	87	6	-	5	76
	5월	100	8	1	3	88

6월	110	1	-	2	107
7월	106	7	-	3	96
8월	114	3	-	4	107
9월	110	4	-	4	102
10월	87	3	-	-	84
11월	88	9	-	9	70
12월	72	5	-	9	58

나) 장애인 안전시설

‘장애인 안전시설’은 자료 분석이 이루어진 2013년 당시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 기타안전시설 4.1.3 용어의 정리’에 따라 ‘장애인 등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장애인 안전시설의 종류로는 보도, 턱 낮추기, 연석경사로, 경사로, 입체 횡단시설, 점자블록, 음향교통신호기, 유도신호장치 등을 범위로 하는데, 〈2015 장애통계연보〉 작성 시에는 여기에 장애인 편의시설 중 안전과 관련한 승강기, 유도 및 안전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도 포함해 분석하였다.

2022년 10월 현재 해당 예규는 2022년 2월 8일 개정 이후부터 ‘제4편 기타안전시설 4 장애인 안전시설’로 항목이 변경되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라 설치·관리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종전의 기준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의 각 별표 항목에 분산시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의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제6조제3항 후단 관련), [별표 2] 보행안전시

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제9조 관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복도·통로·계단과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점자블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입구,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침실·화장실·욕실·샤워실·탈의실·관람석·열람석·접수대·작업대·매표소·판매기·음료대·공중전화·우체통,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등 주요 편의시설에 관한 세부 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으로 제정, 관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치율은 설치 수를 설치기준 항목 수로 나눠 100을 곱한 비율(설치 수 / 설치기준 항목 수 * 100)이며, 적정설치율은 적정설치수를 설치기준 항목 수로 나눠 100을 곱한 비율(적정설치 수 / 설치기준 항목 수 * 100)이다. 또한,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서 승강기 설치 현황은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수치가 없다.

통계에 따르면 설치율은 2008년 49.5%에서 2018년 66.8%로 17.3% 증가했으며, 적정설치율도 2008년 25.9%에서 2018년 61.3%로 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마지막 통계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설치율을 기록한 것은 경보 및 피난설비로 81.0%로 확인되었다.

〈표 21. 2021 장애통계연보,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현황-연도별〉

구분(단위: 개, %)		계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주출입구 접근로 점자블록	승강기
2008년도	설치기준 항목 수	28,994	5,612	5,612	17,770	173,763
	설치 수	14,350	1,389	3,824	9,137	152,065
	설치율	49.5	24.8	68.1	51.4	87.5
	적정 설치 수	7,498	896	1,339	5,263	138,852

	적정 설치율	25.9	16.0	23.9	79.9	79.9
2013년도	설치기준 항목 수	77,309	16,237	32,564	28,508	73,350
	설치 수	43,077	8,523	25,522	9,032	70,813
	설치율	55.7	52.5	78.4	31.7	96.5
	적정 설치 수	35,019	7,720	19,840	7,459	68,211
	적정 설치율	45.3	47.5	60.9	26.2	93.0
2018년도	설치기준 항목 수	295,558	116,670	97,673	81,215	-
	설치 수	197,551	67,068	79,105	51,378	-
	설치율	66.8	57.5	81.0	63.3	-
	적정 설치 수	181,197	63,334	70,247	47,616	-
	적정 설치율	61.3	54.3	71.9	58.6	-

시설주체별 장애인 안전시설의 평균 설치율을 살펴보면 유도 및 안내설비의 경우 55.3%, 경보 및 피난설비 75.9%, 점자블록 63.6%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율의 경우 공공시설이 87.0%인 데에 반해, 민간시설이 64.7%로 22.3%의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2021 장애통계연보,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현황-시설주체별〉

구분(단위: 개, %)		계	시설주체별	
			공공시설	민간시설
유도 및 안내 설비	설치기준 항목 수	110,641	17,285	93,356
	설치 수	67,047	9,028	58,019
	설치율	55.3	52.2	58.4
	적정 설치 수	63,313	8,556	54,757
	적정 설치율	52.4	49.6	55.1
경보 및 피난 설비	설치기준 항목 수	97,663	26,274	71,389
	설치 수	79,095	17,000	62,095
	설치율	75.9	64.7	87.0
	적정 설치 수	55,915	14	55,901
	적정 설치율	66.5	54.6	78.3
점자블록	설치기준 항목 수	81,203	28,540	52,663
	설치 수	51,366	18,455	32,911
	설치율	63.6	64.7	62.5
	적정 설치 수	47,604	16,790	30,814
	적정 설치율	58.7	58.8	58.5

다) 보호구역

〈장애통계연보〉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2년부터 지정되었다. 1995년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008년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에 비해 뒤늦은 지정이고,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복지시설)에 지정된 보호구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수가 매우 적다.

〈표 23. 2021 장애통계연보,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현황〉

구분		전체 (어린이+노인+장애인)	장애인 보호구역
2012		15,730	28
2013		16,105	35
2014		16,537	41
2015		16,995	51
2016		17,531	69
2017		17,939	85
2018		18,494	90
2019		18,941	97
2020	전국	19,269	86
	서울	1,921	7

라) 실종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2021 장애통계연보〉부터 수록되기 시작한 ‘실종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은

2020년 기준 최근 5년간 비장애아동과 지적장애인의 실종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을 비교해, 비장애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적장애인 실종 현황을 다루고 있다.

2020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의 실종신고 접수 비율은 전체 인구수 대비 2.01%로 비장애아동 전체 인구수 대비 실종신고 비율인 0.24%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종 신고접수 후 미발견 비율 역시 비장애아동이 전체 인구수 대비 0.25%인 데에 반해 지적장애인은 전체 인구수 대비 2.01%로 8배 이상 높게 집계되어 실종자 발견에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2020년 지적장애인의 실종 신고접수는 7,078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던 2018년 8,881건에 비해 1,803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2021 장애통계연보, 지적장애인 실종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연도별〉

구분(단위: 명, 건, %)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장애아동	전체 인구수	8,736,051	8,480,447	8,176,335	7,928,907	7,710,946
	신고접수	19,870	19,956	21,980	21,551	19,146
	미발견	3	3	6	9	105
	비율	0.23	0.24	0.27	0.27	0.25
지적장애인	전체 인구수	318,205	326,776	335,760	344,594	351,435
	신고접수	8,542	8,525	8,881	8,360	7,078
	미발견	5	5	9	21	47
	비율	2.68	2.61	2.65	2.43	2.01

라.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2018~2020)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는 장애인의 장애 발생 이후 장애수용 과정과 사회관계 속에서 겪는 변화를 추적하고, 개인·가족·사회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종단면 자료를 구축하여 장애인 정책 수립 및 지원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조사대상 범위는 매년 장애인 6,121명 및 그들의 가구원으로 일관되게 규정하며, 조사대상 지역은 전국을 단위로 한다.

해당 조사에는 특히 ‘평상시 안전도, 사고 경험 및 종류,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실시 인지 및 경험 여부, 위급상황 발생 시 행동’ 등 재난 안전에 관한 문항이 담겨 있어 본 연구에 유의미하며, ‘주거환경 평가’ 항목에 안전에 대한 문항을 두고 있어 참고하게 되었다.

1) 평상시 안전도

장애인이 느끼는 평상시의 안전도는 ‘안전한 편임’이라고 느끼는 비율이 비교적 다수를 차지했는데, 2018년 평균 80.3%에서 2020년 4.8% 증가해 8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을 기준으로 안전함을 느낀다(안전한 편임+매우 안전함)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89.2%로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구분 없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후 통계인 ‘사고 경험 및 종류’에서 사고 경험 인구가 감소한 것도 이러한 수치와 연결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5.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평상시 안전도〉

구분(단위: %)		2018				2020			
		전혀 안전하지 않음	안전하지 않은 편임	안전한 편임	매우 안전함	전혀 안전하지 않음	안전하지 않은 편임	안전한 편임	매우 안전함
장애 유형별	지체	1.4	15.7	76.7	6.2	1.2	10.1	83.5	5.2
	뇌병변	2.1	17.5	77.7	2.7	1.4	11.4	83.9	3.4
	시각	1.5	17.5	77.4	3.5	0.4	11.2	85.5	2.9

	청각/언어	1.0	11.0	82.4	5.7	0.1	7.2	87.3	5.4
	지적/자폐성	2.1	13.7	80.3	3.9	0.1	8.5	87.2	4.2
	정신	1.1	11.8	83.3	3.8	-	15.8	80.8	3.4
	내부/안면	0.4	9.0	84.3	6.3	-	7.9	87.5	4.6
	평균	1.4	13.7	80.3	4.6	0.5	10.3	85.1	4.1
장애 정도별	중증	1.4	13.7	80.9	4.0	0.7	10.3	85.5	3.5
	경증	1.3	13.6	79.7	5.5	0.4	8.8	85.7	5.1

2) 사고 경험 및 종류

2020년 조사에서 제시된 ‘사고 경험 및 종류’ 문항에서, 사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1%를 차지했으며, 2018년 응답률인 12.2%에 비해 1/3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고 종류를 선택하는 문항은 1순위와 2순위를 선택하는 항목이었는데, 통계포에는 1순위 자료만 수록되어 있다. 2018년 교통사고 경험자가 전체 사고 경험자의 45.8%로 과반에 근접했던 반면, 2020년에는 20.3%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대로 2018년 12.9%였던 실족사고 경험자는 2020년에 50.7%로 4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2018년 8.9%에서 2020년 43.6%까지 5배 가까이 폭증한 남성 장애인의 실족사고 경험 증가폭이 영향을 끼쳤다.

〈표 26.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사고 경험 및 종류〉

구분(단위: %)		2018		2020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사고경험	있음	13.8	10.2	4.1	4.0

	없음	86.2	89.8	95.9	96.0
사고종류	갑힘사고(예. 엘리베이터, 방안 등)	1.0	1.0	-	1.3
	교통사고	45.3	46.8	18.8	22.2
	추락사고(낙상사고 포함)	23.8	18.7	23.7	10.3
	화재사고	2.9	0.1	-	-
	끼임사고(예. 지하철 문 등)	2.3	2.5	0.7	3.4
	폭행사고	1.9	0.7	2.0	-
	실종사고(예. 가족을 잃어버림)	0.6	1.8	-	-
	레저사고(예. 자전거, 운동 중)	3.4	3.1	7.2	1.4
	도난사고	0.6	-	0.3	-
	실족사고(예. 넘어짐, 미끄러짐 등)	8.9	20.1	43.6	60.1
	기타	9.3	5.2	3.7	1.2

3)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실시 인지 및 경험 여부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의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진, 지진해일, 태풍, 원전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한 훈련으로 재난 취약 대상의 현장대피 훈련 등을 내용으로 한다.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실시에 대한 인지 및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교육 실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2018년 34.4%에서 2020년 59.2%로 2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2018년 31.9%에서 2020년 16.7%로 15.2% 감소해, 갈수록 참여율이 저조해지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재난안전포털⁴⁾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 장기간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2020년은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어, 이러한 여파로 경험 여부에 대한 응답률이 낮게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표 27.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실시 인지 및 경험 여부〉

구분(단위: %)		2018				2020			
		실시 인지 여부		경험 여부		실시 인지 여부		경험 여부	
		알고 있음	모름	알고 있음	모름	알고 있음	모름	알고 있음	모름
전체		34.4	65.6	31.9	68.1	59.2	40.8	16.7	83.3
성별	남성	40.2	59.8	35.0	65.0	63.9	36.1	17.7	82.3
	여성	27.0	73.0	25.8	74.2	53.0	47.0	15.0	85.0
장애 정도별	중증	28.3	71.7	31.0	69.0	48.8	51.2	16.5	83.5
	경증	38.0	62.0	32.3	67.7	65.2	34.8	16.7	83.3

4) 위급상황 발생 시 행동

재난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장애인 당사자가 적절한 대응방법을 인지하고 있는지 묻는 본 항목에서는 6가지 질문을 통해, 신고 등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소화기, 비상벨의 위치 및 사용법 인지 여부, 대피소 이동에 대한 자구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2020년 조사 결과 모든 문항에서 2018년보다 긍정적 응답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하거나 제3자에게 알릴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8년 대비 최소 0.9%(‘재난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다-조금 할 수 있음’

4)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

응답)에서 최대 3%('재난이나 위급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충분히 할 수 있음' 응답)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소화기와 비상벨 위치 및 사용법 인지 여부도 최소 0.7%('집안/건물 내에 소화기, 비상벨의 위치를 알고 있다-조금 할 수 있음' 응답)에서 최대 4.4%('집안/건물 내에 소화기, 비상벨의 위치를 알고 있다-충분히 할 수 있음' 응답)까지 소폭 상승했다.

대피소 이동에 대한 질문도 최소 0.5%('재난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소까지 이동 할 수 있다-조금 할 수 있음' 응답)에서 최대 4.2%('재난이나 위급상황 발생시 대피소까지 이동 할 수 있다-충분히 할 수 있음' 응답)로 상승했으며, 재난이나 위급상황에 대한 인지능력도 최소 1.2%('재난이나 위급상황을 인지 할 수 있다-조금 할 수 있음' 응답)에서 최대 3.1%('재난이나 위급상황을 인지 할 수 있다-충분히 할 수 있음' 응답)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8.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위급상황 발생 시 행동〉

행동별(단위: %)	2018				2020			
	전혀 못함	거의 못함	조금 할 수 있음	충분히 할 수 있음	전혀 못함	거의 못함	조금 할 수 있음	충분히 할 수 있음
재난이나 위급상황 발생시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다	10.0	11.4	26.6	51.9	6.6	11.1	27.5	54.8
재난이나 위급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	9.2	11.0	26.5	53.3	6.2	9.5	28.0	56.3
집안/건물 내에 소화기, 비상벨의 위치를 알고 있다	14.2	16.3	26.5	43.0	10.5	14.9	27.2	47.4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22.6	23.7	20.6	33.1	19.8	23.8	21.4	35.0
재난이나 위급상황 발생시 대피소까지 이동 할 수 있다	12.3	14.6	28.4	44.7	8.5	13.7	28.9	48.9
재난이나 위급상황을 인지 할 수 있다	8.5	10.0	30.8	50.6	5.1	9.2	32.0	53.7

5) 주거환경 평가

본 문항에서는 주거지 내부의 방열, 방습, 방음과 환기, 난방시설의 정도,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성 여부 부문에서 2020년의 긍정적 답변이 2018년보다 높았고, 집 주변의 활동 편의성에 대한 긍정적 답변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 상승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안전하다’에서 긍정적 응답(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의 평균이 0.2% 상승하는 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 주변 소음, 진동, 악취로 인해 생활하기에 좋지 않다’ 및 ‘집 주변에 병원, 소방서, 사회복지시설 등이 가까이 있다’ 항목에서 긍정적 응답(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의 평균은 0.2%씩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주거환경 평가〉

주거환경별(단위: %)	2018				2020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집이 튼튼하고 내부 구조재질이 방열/방습에 양호하다	1.3	12.4	66.7	19.6	1.4	10.7	63.1	24.9
적절한 방음, 환기, 난방시설을 갖추고 있다	1.7	13.2	61.7	23.4	2.2	10.1	59.1	28.6
집 주변 소음, 진동, 악취로 인해 생활하기에 좋지 않다	18.3	27.9	39.1	14.7	14.8	31.9	27.6	25.7
해일, 홍수, 산사태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	1.1	9.7	65.7	23.5	2.2	7.5	62.9	27.3
집 주변에서 활동하기 편리하다	1.2	10.1	65.7	23.0	1.4	9.7	62.2	26.7
집 주변 교통안전시설(신호등, 횡단보도 등)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다	1.3	10.8	66.0	21.9	1.8	10.3	63.4	24.5
집 주변에 병원, 소방서, 사회복지시설 등이 가까이 있다	4.6	18.7	59.6	17.1	5.3	18.5	59.2	17.0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안전하다	1.2	8.9	70.7	19.3	1.1	8.4	68.0	22.4

3. 장애인 재난 안전에 관한 언론 보도

가. 장애인 재난 안전에 관한 언론 보도

각종 통계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재난 안전에 관한 언론의 보도도 본 연구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는데, 일부 언론 보도는 문제점 지적과 함께 다양한 개선안도 제시하여 연구결과 도출에 좋은 요소로 작용했다.

효과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장애계 이슈를 주로 다루는 언론사 <에이블뉴스>와 <비마이너>에서, ‘장애인’과 주요 재난 안전 관련 키워드 4개(안전, 재난, 태풍, 화재) 중 1개 이상이 동시 인용된 보도를 중심으로 기사를 검색했다. 주요 일간지에 관련 키워드로 검색되는 기사는 장애인 재난 안전에 관한 문제점과 현황만 담은 기사가 대부분인 관계로 배척하였다. 기사 검색 기간은 시의성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2년(연구용역 개시 해당 월인 2022년 6월 이전 3년, 2020년 7월~2022년 6월)에 한정했다.

‘태풍’은 자연재해, ‘화재’는 사회재난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재난 상황에 해당해 검색 키워드로 선정했으며, ‘코로나, 감염병’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들은 현황 및 문제점만 담은 중복 내용이 많아 ‘안전, 재난’ 키워드를 통해 검색된 코로나 관련 언론 보도 중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것만을 선별하였다. 기관이 진행한 여러 재난 안전 분야 지원사업은 주목할만한 일부 소식만 선별하였고, 기관의 성명이나 칼럼니스트의 칼럼이라도 인용된 자료와 대안으로 제시된 제안 등이 본 연구결과 도출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는 경우 선별 수록하였다. 단, 후술하게 될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에 관한 기사는 제외하였다.

보도 일자, 언론사, 기사 제호 및 기사의 핵심 내용, 해당 기사가 본 연구에 영향을 준 시사점 등은 다음과 같다.

<표 30. 장애인 재난 안전에 관한 주요 언론 보도 일람(2020.07~2022.06)>

보도일자	언론사	기사 제호 및 주요 내용	시사점
2020.07.02	에이블뉴스	재난 관련 통계, 장애포괄적으로 개선해야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20062913584873804	통계청 및 질병관리본부 인력을 대상으로 정기적 장애이해 교육 실시, 통계법에

		<p>0</p> <p>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통계에 장애인 관련 데이터가 부재하다. 장애 관련 통계가 없어, 장애 유형별 사망자 수 등은 언론 보도 또는 보건복지부 자료를 장애계 단체에서 재구성한 자료로만 간접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이다. 3년 전 정부에서 관련 통계 미비에 관한 체계적 정책 수립이 필요한 점 인지했으나, 제자리걸음이다.</p>	<p>장애인 등의 관련 규정 추가하는 등의 개선 필요</p>
2020.07.22	에이블뉴스	<p>청각장애인 위해 '코로나19 예방수칙' 수어안내 영상 배포</p> <p>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722091732692706</p> <p>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AI 수어 번역 솔루션 전문기업 이큐포올과 함께 청각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수칙 수어 안내 영상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했다.</p>	<p>청각장애인을 위한 재난 안전 매뉴얼의 수어 영상 제작 및 배포 확산</p>
2020.08.21	에이블뉴스	<p>공중이용시설 장애인 피난설비 세부기준 마련 권고</p> <p>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821081516548050</p> <p>시청각장애인·노인·임산부가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공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등에 경보 및 피난 구조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 예정이다. 경보 및 피난 구조 설비의 위치나 방법, 종류, 수량 등을 규정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게 적합한 세부기준을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마련하도록 소방청에 권고했다.</p>	<p>경보 및 피난 구조 설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p>
2020.08.27	에이블뉴스	<p>경기소방재난본부, 장애인 재난대응 애니메이션 제작</p> <p>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6&NewsCode=003620200827094844520547</p>	<p>애니메이션 형식의 재난대응 매뉴얼 콘텐츠 제작 및 보급</p>

		경기도에서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형식의 재난대응 매뉴얼을 제작했다. 지진과 화재, 가스, 교통사고, 에스컬레이터 등 5개 재난상황별로 자세한 행동요령과 대처방법을 알기 쉽게 만든 콘텐츠로 수어와 자막 등 2가지 종류로 제작했다.	
2020.10.21	에이블뉴스	장애인 등 응급안전서비스, 인력난 심각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1021131535196591 장애인 등 위기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관리 및 대응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응급관리요원 1인당 평균 약 153명을 담당하는 상황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관리 및 대응 인력 확충
2020.11.03	에이블뉴스	김천장북, 재가장애인 가정 전기안전점검 실시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52&NewsCode=003820201103175756690594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한전 경북서부지사가 재가장애인 가정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전기배선, 합선, 누전 등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노후 전기 시설과 LED 교체와 안전한 전기 사용법을 안내했다.	재가장애인을 위한 전기안전 시설점검 및 안전교육 진행
2020.12.30	에이블뉴스	청각장애인을 위한 '응급상황 수어 안내서비스' 실시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4&NewsCode=003420201230111126082138 한국농아인협회와 AI 인공지능 수어 번역 솔루션 전문기업 이큐포올이 응급상황 실시간 수어 영상 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 재난안내를 수어나 수어 애니메이션으로 변환해 스마트폰 공용 앱(수어통)을 통해 제공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응급상황 실시간 수어 영상 서비스 제공
2021.01.14	에이블뉴스	어설피품과 과함이 공존하는 안전시설	화재 시 장애인을 위

		<p>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210112070811354021</p> <p>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안전한 피난설비(랙기어를 이용하여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 화재 시 서서히 타고 내려오는 피난 기구)가 있으나, 국토부와 행안부의 재난안전인증, 기술표준원의 신기술인증 등을 획득해 정부로부터 우선구매를 약속받은 국내 제품에 문제가 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작동할 수 없는 발판 구동 방식인 것이다. 또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 원상복귀가 정확하지 않으며, 유격 오차도 정도를 넘고, 랙기어 방식에도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더욱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p>	<p>한 피난 기구로 제작, 설치되고 있는 제품에 문제점 개선 필요</p>
2021.01.26	에이블뉴스	<p>안타까운 장애인의 화재 사망, 더 이상은 막아야 한다</p> <p>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1&NewsCode=001120210126132715587473</p> <p>부산 금정구의 한 주택의 화재로 40대 지적장애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제공되었더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p>	<p>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확대 보급 필요</p>
2021.03.05	에이블뉴스	<p>코로나19 1년, 드러난 장애인 사각지대</p> <p>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10305154019793601</p> <p>질병관리청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의 사망률은 7.49%로 비장애인 확진자 사망률 1.2%에 비해 6배 이상 높았다. 더불어 확진자 중 장애인의 비율은 4%지만, 코로나19 사망자 중 장애인의 비율은 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일자리나 직장에도 영향을 끼쳐 비장애인 실업률이 2.8%인데, 반면 장애인 실업률은 5.9%로 2배 이상 높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p>	<p>코로나19 통계에서 장애인의 피해가 비장애인보다 높았으며, 실업률 상승, 돌봄 공백 문제 해결이 필요</p>

		사회복지시설 휴관, 폐쇄는 발달장애인 가정 내 돌봄 공백도 문제로 대두된다.	
2021.05.21	에이블뉴스	장애인 관련 법률안 8건, 본회의 통과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210521114648508148 국회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대상시설 범위 확대, 장애인연금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정신질환자 치료와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내용이 담긴 법률안 등 장애인 관련 법률안 8건의 의결되었다.	장애인 안전에 관련된 법률안 통과
2021.07.20	에이블뉴스	장애인 생명 위협, "방역 사각지대 방치 말라"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10720145546270196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에서 백신 접종 예약과 관련해 예방접종센터 및 위탁의료기관의 장애인 접근성을 점검해, 장애인이 접종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촉구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 예약시스템 미비로 부당한 처우를 겪은 장애인들에게 방문 접종 및 접종 우선권 부여 대책 등을 마련하고, 중증장애인 등 고위험군은 검사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의료적 처치를 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대책 마련
2021.08.26	에이블뉴스	경기소방본부, 청각장애인 위한 3자 영상통화시스템 구축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6&NewsCode=003620210826102946939672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청각장애인 대상 소방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손말이음센터와 3자 영상통화 연결 시스템을 구축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손말이음센터 영상통화연결 시스템 구축
2021.11.12	에이블뉴스	휠체어 사용 장애인 피난승강기 드디어 개발 http://www.ablenews.co.kr/News/News	휠체어 장애인용 피난승강기 개발

		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211111123458951465 아세아방재에서 행정안전부 R&D지원사업으로 휠체어 장애인용 피난승강기를 개발했다. 휠체어 장애인용 하강식 피난기 첫 실험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2022.01.27	에이블뉴스	서울시, 청각장애인 500세대 '보이는 화재경보기' 보급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20127113403080445 서울시에서 중증 청각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 2만8,500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한다. 2010년부터 12년간 62억 원을 투입해 화재 취약계층 16만7천여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추진해 왔으며, 2022년에는 28,500세대에 무상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중증 청각장애인 500세대에는 시각표시 기능이 있는 '보이는 화재경보기'를 보급할 방침이다.	화재 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및 중증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이는 화재경보기' 보급
2022.03.09	비마이너	[현장] '울진 산불, 운 없으면 죽을 뻔' 장애인 지원 매뉴얼 아직도 없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28 기존 정부 및 각 관련 기관의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내에 내용이 부족해,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고 있었다.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포괄하는 세세한 지원 내용도 없어, 그동안 장애계는 현장 적용이 가능한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수차례 요구해왔다.	장애인 재난 안전 매뉴얼 고도화 필요
2022.03.16	에이블뉴스	장애인공단·소방청,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확대 운영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4&NewsCode=003420220316130841407465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소방청과 연계해, 공단	직업훈련기관 장애인 훈련생 대상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실시

		산하 직업훈련기관 장애인 훈련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을 확대·운영한다.	
2022.05.12	에이블뉴스	<p>“지하철 안내방송 안들려요” 장애인들 발 동동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20512090414301511</p> <p>지하철 안내방송 소리가 너무 작아 시각장애인이나 저청력 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있다. 권고 주행소음 기준은 최대 92dB(데시벨)인데, 청각장애인에게 안내방송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상황이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스크린이 보이지 않아 안내방송이 중요하다. 지하철 호선별 심각한 소음(92dB) 구간 및 시간대를 전수 조사해 안내방송 데시벨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기관사와 승무원 교육, 지하철 열차 내 스피커 정기 점검 및 수리 관련 규정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p>	지하철 소음 때문에 청각장애인에게 안내방송이 잘 안 들리는 문제 개선 필요
2022.06.17	에이블뉴스	<p>장애인 피난설비 없는 공공임대주택 '차별'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20616164053565486</p> <p>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공임대주택에 장애인 피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대구 도시공사에 음성점멸유도등, 승강기 및 계단 점형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p>	국가인권위에서 대구 도시공사에게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피난시설을 개선해 나아갈 것을 권고
2022.06.29	에이블뉴스	<p>서울시, 맞춤형 콘텐츠 보급 등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확대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4&NewsCode=003420220629085619662269#z</p> <p>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확대에 나선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재난 상황별 대응요령 동영상 제작, 음성변환 기능 탑재 시각장애인용 점자 교재 제작,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확대 등이다.</p>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보급

4. 장애인 재난 안전에 관한 설문조사

가. 장애인 재난 안전에 관한 설문조사

본 연구 주제의 적정성 및 장애인 재난 안전정책 필요성에 대해, 서울시 거주 등록장애인 95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장애인 재난 안전에 관한 지원정책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전체 94.8%(매우 그렇다+그렇다)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장애인이 재난 상황에서 비장애인보다 더 위험하다고 여기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98.9%(매우 그렇다+그렇다)가 그렇다고 응답해 관련 대안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정책과 조례가 적절하다고 여기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두 부문에서 모두 부정적 인식이 48.4%(아니다+매우 아니다)로 높게 확인되었으며, 반면 교육 및 훈련 경험은 67.4%(매우 그렇다+그렇다)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 매뉴얼은 96.9%(매우 그렇다+그렇다)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표 31. 서울시 장애인 재난 안전정책 필요성에 관한 욕구 설문조사〉

질문	답변(단위: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1. 장애인 재난 안전에 관한 지원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기십니까?	85.3	9.5	5.3	-	-
2. 장애인이 재난 상황에서 비장애인보다 더 위험하다고 여기십니까?	86.3	12.6	1.1	-	-
3. 장애인 재난 안전에 관한 서울시의 정책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5.8	7.4	28.4	36.8	11.6
4. 장애인 재난 안전에 관한 서울시 조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2.6	8.4	30.5	37.9	10.5
5. 장애인 재난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33.7	33.7	5.3	16.8	10.5
6. 장애인 재난 안전을 위해 장애유형별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3.7	23.2	2.1	1.1	-

Ⅲ. 기존 재난 안전 정책 현황

1. 서울시의회 재난 안전 관련 조례

가. 서울시의회 재난 안전 관련 조례 현황

1) 조례 현황

2022년 6월 30일 현재 재난 안전 관련 서울시의회 조례는 총 31개로 재난상황별 조례 현황 및 본청 관리책임부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2. 서울시의회 재난 안전 관련 조례〉

재난 상황	조례명	관리책임부서
공통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현장대응단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	안전지원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안전지원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전지원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과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전지원과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안전총괄과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전총괄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안전총괄과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전총괄과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장대응단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현장대응단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하천관리과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시설안전과
① 화재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안전지원과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장대응단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현장대응단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난대응과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예방과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예방과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현장대응단
② 전기/정전 사고	-	-
③ 가스사고	-	-
④ 단수	-	-
⑤ 감염병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감염병관리과
⑥ 응급상황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현장대응단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보건의료정책과
⑦ 폭염	-	-

⑧ 한파/대설	-	-
⑨ 황사/미세먼지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대기정책과
⑩ 지진/산사태/낙뢰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산지방재과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안전지원과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전지원과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안전지원과
⑪ 태풍/폭우	-	-
⑫ 홍수/해일	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난대응과

나. 조례 주요 내용 및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보완점

총 31개 재난 안전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보완점을 정리하였다. 전기/정전사고, 가스사고, 단수, 폭염, 한파/대설, 태풍/폭우 등의 재난 상황을 다룬 조례는 없는 상태이다.

1) 공통

가)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각종 사고와 재난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긴급구조 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장 및 현장지휘관의 책무를 규정하고, 긴급구조지원 활동, 통합지원본부 등 현장 지휘체계 확립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보완점: 재난 현장 지휘체계에 관한 조례로 해당 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

-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서울시민을 위한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시책의 추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관계 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시민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보완점: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 및 시책을 추진할 때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 정책을 의무화하고,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관련 내용 명시.

다)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 정책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보완점: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을 특정하는 조항은 불필요하나, 대상자가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일 경우 보상 범위와 보상한도액의 하한선을 명시하는 등의 보완 필요.

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서울시민을 위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보완점: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규정에 장애가 있는 서울시민이 안전체험관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항목을 보완해야 함.

마)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재난 및 사고 등의 현장에서 시민들 스스로 서로를 보호하고 돕는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보완점: 시민안전파수꾼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장애이

해교육을 의무이행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함.

바)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 등에서 안전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보완점: 협의회 구성원들이 장애이해교육을 의무이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함.

사)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재난 예방과 발생 시의 구호와 복구 자금으로 사용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보완점: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인 등이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한 후 지원금으로 수령 또는 대출로써 상환하는 데에 정보전달 및 소통이 원활하도록 실무자 장애이해교육 의무이행, 음성, 수어, 점자 등 다양한 방식의 정보제공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함.

아)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서울의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하기 위해, 재난 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 안전문화활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보완점: 제57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관련 시책 수립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권고형 문구를 '지원해야 한다'의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하위 내용 역시 의무로 명시.

자)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신속한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보완점: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에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인 등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신속한 재난 안전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6조(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에 민간 장애인 단체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을 추진하도록 명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에 관한 제8조(교육·훈련)에서도 장애이해교육을 의무이행하도록 명시.

차)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재난대응 활동에 따라 손실되는 민간자원의 지원 및 보상 방법과 기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보완점: 재난대응 활동 시 발생하는 민간자원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로 해당 사항 없음.

카)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각종 재난 현장에 현장지휘관과 관계자 역량을 강화할 위한 지휘역량 강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보완점: 지휘역량 강화교육과정에 장애이해교육을 의무이행하도록 명시.

타)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보완점: 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장애이해교육을 의무이행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함.

파)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 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계획,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재난대응 교육 및 훈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보완점: 제5조(재난관리계획)에 장애인 등 재난취약 계층에 대한 대응책 수립을 명시. 제8조(교육 및 훈련)에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 대상 재난 및 테러 안전교육을 진행할 때 장애이해교육과 장애인 구호 및 대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명시.

2) 화재

가)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화재 등 재난 시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교육 활동을 지원해, 초기대응역량 강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보완점: 소방훈련·교육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진행 시 장애이해교육을 의무이행하고, 장애인 구호 및 대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명시.

나)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화재 등 재난 시 효과적 화재진압 및 응급구조활동을 위해 제반 정보를 제공하는 소방안전지도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보완점: 소방안전지도 구축 시 관계자 대상 장애이해 교육을 의무이행하고, 장애인 구호 및 대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명시. 특히, 지적장애인 등 쉬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장애 유형을 반드시 고려해 구성하도록 명시.

다)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소방기관이나 소방공무원이 재난대응 활동 중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보상 방법과 기준에 관한 내용

을 담고 있다.

-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보완점: 재난대응 활동 시 발생하는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로 해당 사항 없음.

라)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복무와 교육훈련, 경비 및 재해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보완점: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와 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의무이행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함.

마)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주택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기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보완점: 일반 소화기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투척형소화기 배치를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추가 명시해야 함. 아울러 같은 조항 단독경보형감지기구의 경우 시각, 청각 장애인은 비상등과 비상벨을 방마다 설치하도록 명시.

바)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소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관한 세부사항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보완점: 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불 피움에 관한 조례로 해당 없음.

사)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재기할 수 있도록 민간협력 지원을 돕거나, 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보완점: 화재피해자가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일 경우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인과의 소통 및 편의시설 복구에 관한 적극적 지원사항 명시.

3) 감염병 및 응급상황

가)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보완점: 제3조(시장의 책무)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대응방안을 포함. 또한, 제7조(감염병위기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제공을 명시하고, 제25조2(자가격리 장애인 지원)에 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의 선택적 조항이 아닌 ‘해야 한다’의 의무조항으로 변경.

나)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심정지 고위험군의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보완점: 제2조(정의) 고위험군에 심장장애인을 포함, 비정기적 발작 증세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뇌전증장애인, 무리한 심부 압박에 따라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 지체장애인에 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시행)에 ‘장애유형별 심폐소생술 이해에 관한 사항’을 명시.

다)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주요 안전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와 재발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보완점: 포괄적 사안이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내용을 특정할 필요 없음.

라)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응급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보완점: 제8조(재난응급 의료지원 및 교육 등)에 장애이해교육 의무이행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제11조(응급환자 이송)에 응급환자가 보장구 사용 장애인인 경우 사용하는 보장구를 이송 병원에 수송해주는 내용을 포함. 제13조(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등)에 명시된 장애인 등의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과는 별도의 사안.

마)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보완점: 위원회 구성원들이 장애이해교육을 의무이행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함.

4) 기타(황사/미세먼지/지진/산사태/홍수)

가)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보완점: 제2조(정의) 민감군에 호흡기장애인 추가.

나)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보완점: 위원회 구성원들이 장애이해교육을 의무이행하는 조항을 신설. 제3조(기능)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에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안전한 대피에 관한 사항 명시.

다)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지진재해 예방과 대응력 향상을 위해 지진과 관련한 사업의 범위,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보완점: 제4조(지진방재종합계획수립)에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안전한 대피에 관한 사항 명시.

라)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지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진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지진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지진재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보완점: 조사단 구성원들이 장애이해교육을 의무이행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함.

마)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지진발생으로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보완점: 자치구에 구성되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원들이 장애이해교육을 의무이행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함.

바) 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시민의 안전한 여가활동 보장 및 시민의 생명과 신

체를 보호할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보완점: 시민수상구조대 구성원들이 장애이해교육을 의무이행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함.

2. 서울시 재난 안전 행정 및 정책

가. 서울시 재난 안전 행정 조직 및 업무분장

서울시는 시장 산하에 대변인, 홍보기획관과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을 두고 있으며,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3부시장 체제와 별도의 기획조정실, 소방재난본부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재난 안전 행정을 담당하는 중점 부서는 행정2부시장 산하 ‘안전총괄실’과 시장 직속 ‘소방재난본부’

〈그림 1. 서울시청 조직도〉⁵⁾



행정2부지사 산하 ‘안전총괄실’은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과, 안전지원과, 건설혁신과,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등 8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등과 협력해 주요 재난 상황에 대한 안전

5)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s://org.seoul.go.kr/org/orgChart.do>

감찰을 진행한다. 코로나19, 폭염, 한파, 지진 등 주요 재난 상황에 관련한 종합대책수립 업무는 안전총괄과, 안전지원과 등에서 담당한다. 그밖에 산사태 방지에 관한 사항은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홍수 방지에 관한 사항은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행정1부시장 산하 시민건강국은 감염병과 의료보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는 황사와 미세먼지 등 기후환경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그림 2. 서울시청 안전총괄실 조직도〉⁶⁾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장 산하에 소방행정과, 재난대응과, 예방과, 안전지원과 등 4개 과와 현장대응단, 소방감사담당관 등 총 6개 조직을 두고 있다. 화재를 포함한 각종 재난 상황에서의 실질적 대응을 담당하는 소방재난본부는 재난 유형에 무관하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6)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s://org.seoul.go.kr/org/orgChart.do>

<그림 3.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조직도>7)



나. 서울시 재난 안전 정책 현황

서울시청 안전총괄실은 2022년 2월 시의회에 제출한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안전총괄과, 안전지원과에서 재난 안전에 관한 다음 주요 업무들을 추진해 왔다고 보고했다.

- 1) 재난 상황관리 총괄, 재난 발생 초기 대응, 코로나19 중대본 운영 및 자가격리자 관리
- 2) 도시 안전 주요정책 개발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관리기금 운용
- 3) 중대시민재해 예방, 재난 안전예산 사전검토, 재난대응 매뉴얼 및 사고 통계관

7)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s://fire.seoul.go.kr/pages/cnts.do?id=257>

리

- 4) 소방재난본부·자치구 등과의 연계·협력, 안전감찰 추진
- 5) 폭염·한파 종합대책수립 등 총괄·조정, 코로나19 방역관리(출입명부 등)
- 6) 안전신고, 시민안전교육, 안전보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등 민관협력 업무
- 7) 지진방재업무(지진방재종합계획, 내진 성능확보 등) 총괄·조정
- 8)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수립 및 자원관리, 방역물품 비축창고 운영

아울러 2022년 추진 업무 중 재난 안전 부문에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주요 보고사항에 장애인 재난 안전에 관한 개선정책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1)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 역량강화 훈련

- 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2022년 하반기 메타버스 활용, 시·자치구·유관 기관·민간단체 합동 재난수습 종합훈련
- 나) ICTC 통합지원본부 가상훈련: ICTC 재난 시뮬레이션 활용 실무반 핵심 임무 및 처리절차 습득을 위한 소방 긴급구조통제단 협업 훈련
- 다) 시장단 이동체계 가동훈련: 사고 발생 초기 대응 절차 및 유형별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점검 훈련
- 라) 시기별 주요 재난대응 훈련: 시기별 재난 발생 빈도가 높은 유관부서와 주요 재난 맞춤형 훈련, 재난 발생 시 파생되는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습부서 간 역할 공유
- 마) 불시 통합지원본부 훈련: 신속한 상황전파를 바탕으로 한 불시 상황훈련을 통해 돌발상황 문제 해결 역량 강화

2)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들기

- 가) 서울시 공공시설물 70개소 556억 원 투입 내진확보: 누적 2,030개소, 내진을 100% 달성 목표

3) 지하차도 침수방지 시설 확충

- 가) 강우강도 1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상향에 따라 3개소 배수용량 개선
- 나) 21개소 침수감지센서, 7개소 진입차단시설, 17개소 펌프제어 이중화 설치

4) 제설·한파/폭염 대책 추진

- 가) 서해지역 강설 CCTV 5개소 운영, SNS 실시간 상황공유
- 나) IoT 기반 친환경 제설시스템 개발, 원격제설시설 확충
- 다) 시민협력 자율방재단·통장협의회 등 민간조직 구성, 민·관·군·경 협력 체계 구축
- 라) 친환경 제설제 활용, 콘크리트 부식 및 식생 고사 방지
- 마) 한파·폭염 대비 취약계층 보호 활동 및 피해 예방 사업 시행

5) 재난 안전 거버넌스 강화

- 가) 지역주민 「더 안전시민모임」 위험시설물 상시관리체계 강화
- 나) 서울시 안전보안관 활동 강화로 안전의식 확산
- 다)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 지원
- 라) 재난 안전 분야 국제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
- 마) 해외도시 공무원 온라인 연수운영

6) 시민안전보험 추진

- 가) 피보험자: 등록외국인 포함 서울시 모든 주민등록 시민
- 나) 보험기간: 2022. 12. 31.(보험청구 소멸시효 사고일로부터 3년)
- 다) 보험료: 1,494백만 원(서울시 전액 부담)
- 라) 보장내용: 폭발·화재,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실버존 교통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
- 마) 2년간 지급 실적이 가장 많았던 화재폭발사고,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각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보장
- 바)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보장에 노인 실버존 교통사고 보장 추가
- 사) 부상등급 보장범위 1~5급에서 1~7급까지로 확대

서울시 소방안전본부 역시 2022년 2월 시의회에 주요업무보고를 제출해 주요 사업 추진계획으로 다음의 사안들을 보고했으나, 주요 보고사항에 장애인 재난 안전에 관한 개선정책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1) 재난환경 선제적 대비태세 확립

- 가) 일상화된 감염병 대응 및 관리방안: 전담구급대 연차적 확대·보강, 신규 구급대원 150명 충원 및 기간제노동자 정원화 추진, '1소방서 1음압구급차' 추진으로 7대에서 15대로 확대.
- 나) 코로나19 관련 시설 화재 등 현장대응력 강화: 현황 정비 및 상시관리체제 시행,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 강화, 입소자 안전확보 및 감염관리 중심의 선제적 총력 대응, 집단감염 예방 철저한 방역관리, N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관리(감염방지물품 통합 물류센터시스템 운영)
- 다) 도시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대비, 재난환경에 맞는 소방장비 도입 및 체계적 관리

2) 현장 중심 총력대응으로 재난대응력 강화

- 가) 재난 현장 긴급구조 통합대응체계 확립: 사망자 다수 부상자 발생, 다중이용시설, 공사장, 쪽방 등 취약계층 사고, 핵심기반시설 사고 등 '서울시 중점관리대상'은 초기부터 직접 상황관리
- 나) 유관기관별 비상자원 및 동원체계 통합 운영
- 다) 재난 현장 통합대응을 위한 현장지휘권 강화, 인명구조 중심 현장대응력 강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 라) 첨단기술 활용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황금시간(골든 타임) 목표 달성
- 마) 서울119 EMS 아카데미 운영, 중증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 중증 뇌출혈 환자 분류별 도입 및 대원 교육
- 바) 유관 기관 공조체계 구축으로 효율적 특수재난 대응, 산림화재 통합 대응 매뉴얼 구축, 재난 현장 드론 활용성 확대

3) 빈틈없이 안전한 예방환경 조성

- 가) 주거시설 화재 예방 및 안전환경 기반조성: 홀몸 어르신 등 화재 취약계층 안전복지 향상, 소방시설 강화 및 피난 대피 안전환경 개선, 화재 취약 및 다중밀집지역에 설치된 노후 보이는 소화기 개선
- 나) 재난 취약시설 안전성 향상 및 피해 저감 추진, 전통시장 옛지 AI CCTV(화재인지) 시범설치 추진
- 다) 워드 코로나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추진, 1권역 1재난안전체험관 건립 추진

다. 서울시 장애인 재난대응 안내

1) 장애인을 위한 재난대응 요령 안내

〈그림 4. 서울안전누리 재난약자 행동요령, 장애인안전 코너〉

The screenshot shows the Seoul Safety Network (서울안전누리) website. The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재난속보', '사고속보', '행동요령', '재난대비시설', '주요안전정책', '생활날씨', '열린마당', and '시민안전교육'. The '행동요령' (Behavioral Guidelines) section is selected, and the '장애인안전' (Disability Safety) sub-section is active. The page title is '장애인안전' (Disability Safety). Below the title, there are three tabs: '사고대비' (Disaster Preparedness), '사고발생' (Disaster Occurrence), and '발생 후' (After Occurrence). The '사고대비' tab is selected. Under this tab, there is a dropdown menu for '공통' (Common). The main content area contains five informational cards with icons and text:

- 사무실, 학교, 혹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서의 비상상황 혹은 재난대비 준비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세요. (Icon: Clipboard with checkmark)
- 각 방과 건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출구를 미리 파악해 두세요. (Icon: Person running through a door)
- 가정 내 수도, 전기, 가스 차단 밸브의 위치를 파악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수도, 전기, 가스연결을 언제 어떻게 해제해야 하는지 알아 두세요. (Icon: Family at a table)
- 대피 시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유형의 장비가 필요한가를 파악해 두고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어떤 대피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지역사회 지원기관과 미리 논의하세요. (Icon: People at a table)
-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준비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휴대하세요. (Icon: Hand holding a checklist)

서울시에서는 실시간 재난 및 사고 발생 정보, 상황과 장소에 맞는 행동요령, 위기기반의 가장 가까운 대피소와 병원, 날씨와 생활지수 등을 안내하는 재난 안전 종합서비스 '서울안전누리(<https://safecity.seoul.go.kr>)'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 ‘행동요령→재난약자 행동요령→장애인안전’ 코너를 통해 장애인 재난 안전 정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재난유형별 대처방법을 쉬운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다. 간략한 문장으로 지적장애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재난대응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제된 자료이지만 관심이 없으면 확인하기가 힘들어 접근성이 좋지 않다.

크게 ‘사고대비, 사고 발생, 발생 후’의 3가지 구분을 두고 다음과 같은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표 33. 서울안전누리 장애인안전 매뉴얼〉

구분	유형	내용
사고대비	공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학교, 혹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서의 비상상황 혹은 재난대비 준비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세요. 각 방과 건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출구를 미리 파악해 두세요. 가정 내 수도, 전기, 가스 차단 밸브의 위치를 파악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수도, 전기, 가스 연결을 언제 어떻게 해제해야 하는지 알아 두세요. 대피 시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유형의 장비가 필요한가를 파악해 두고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어떤 대피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지역사회 지원기관과 미리 논의하세요.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준비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휴대하세요. 각 항목의 준비를 완료한 날짜를 기입하고 정기적으로 검토 및 업데이트하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제약사항을 생각해두세요. - 복용해야 하는 약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지갑 혹은 가방에 휴대하세요. - 비상상황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배우자, 룸메이트, 친구, 이웃, 친척, 동료)을 찾아 지정하고 작성한 목록을 공유하세요.
	낙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나 물건을 보행 및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하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에 미끄러운 용액이나 물 흘리지 마세요. - 침상 주변 등을 잘 정리하여 보행 및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세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법, 휠체어 사용법, 침대 난간 사용법, 워커 사용법 등의 교육을 받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하면 기능이 건강한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침대 배정하세요. - 침대 난간이 내려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올려주세요. 평소에 조정과 평형감각을 확인하세요. 이동하기 전 모든 장비를 점검하세요.
	화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재난을 대비하여 최소 두 가지의 탈출 경로를 계획하세요.
	전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한 전기기구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놓고 외출하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전기장판 등을 장시간 전원을 켜 상태로 사용하지 마세요. 2. 전열기 등의 자동 온도 조절기의 고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3. 고열이 발생하는 백열전구는 열이 잘 발산될 수 있도록 하고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마세요. 4. 늘어진 전선에 접근하거나 만지지 마세요.
	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안전밸브를 닫아주세요. 2. 주기적으로 가스 안전점검을 받으세요.
	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진 발생 시 위험할 집안 가구 및 물건을 정리하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장이나 높은 곳에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을 정리하세요. - 머리맡에 깨지거나 무거운 물품 두지 마세요. 2. 비상시 대비 응급처치법 배우세요. 3. 전기배선, 가스 등을 점검하여 불안정한 부분은 미리 수리하세요. 4. 가스·전기·수도 차단 방법을 미리 숙지하세요. 5. 지진 후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결정 공유하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지역에 사는 보호자나 가족에게 본인의 안전을 알릴 수 있도록 통신 수단을 마련하세요. 6. 집 주위에 대피할 수 있는 공터, 학교, 공원 등 미리 숙지하세요. 7. 비상시 사용할 약품·비품·장비·식품의 위치와 사용법을 알아 두세요.
사고 발생	태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 상황을 파악하세요. 2.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세요. 3. 집안 창문 및 출입문을 잠그세요. 4. 휠체어, 손전등 비상 장비를 찾기 쉬운 곳에 두세요. 5.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거주 주민은 대피 준비하세요. 6. 대피 시 반드시 수도, 가스, 전기를 차단하고 대피하세요. 7. 재난 담당 부서, 사회복지기관 장애인 담당 부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상담하세요.
	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벨을 누르고 도움을 줄 사람(소방공무원, 활동보조인)을 기다리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을 줄 사람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세요. 2. 지진 발생 시 위험한 장소를 피하여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한 위치에서 벗어나세요.
	낙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벨을 누르고 도움을 줄 사람(소방공무원, 활동보조인)을 기다리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되도록 움직이지 마세요.
	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벨을 누르고 도움을 줄 사람(소방공무원, 활동보조인)을 기다리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을 줄 사람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세요. 2. 제1 탈출 경로에 연기나 불을 보면 제2 탈출 경로를 이용하고, 연기 나는 곳을 통과할 경우 낮은 자세로 나가세요. 3. 닫힌 문을 열어서 탈출할 경우, 문을 만져보고 문에서 열기를 느끼면 다른 탈출 경로를 이용하세요. 4. 밖으로 탈출한 후 절대 다시 돌아오지 마세요.
	붕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벨을 누르고 도움을 줄 사람(소방공무원, 활동보조인)을 기다리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을 줄 사람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세요. 2. 건물이 붕괴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주변을 살펴서 대피로를 찾으세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엘리베이터 홀, 계단 등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임시 대피하세요. 4.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세요. 5. 이동 중에는 장애물 등을 가급적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제거할 경우 추가 붕괴위험에 대비하세요. 6. 가스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성냥, 스토브 등을 켜지 마세요. 7. 잔해에 깔린 경우 불필요하게 체력을 소모하지 말고 가급적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구조를 요청하세요. 8. 구조 요청방법은 파이프 등을 규칙적으로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하세요. 9. 유리 파편이나 낙하물에 대비하여 코트, 담요, 신문, 박스 등으로 머리와 얼굴을 보호하세요. 10. 잔해 때문에 꼼짝 못하게 된 경우 혈액순환이 잘되도록 수시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이세요. 11. 공기 공급이 잘되는 창문이나 선반이 없는 벽 쪽이나 낙하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튼튼한 테이블 밑에서 자세를 낮추고 구조를 기다리세요.
폭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벨을 누르고 도움을 줄 사람(소방공무원, 활동보조인)을 기다리세요. - 도움을 줄 사람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세요. 2. 누출된 가스가 폭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라이터, 버너 등을 켜지 마세요. 3.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하지 않도록 창문 등을 열어 환기하세요. 4. 가스에 의해 눈이 따가울 경우에는 깨끗한 물로 씻으세요. 5.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세요. - 대피 장소는 사고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공터가 좋습니다 6. 대피 시에는 연기·가스에 의한 질식이나 호흡기관의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바람 부는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이동하고 물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으세요. 7. 가스 누출이 발견되면 즉시 연소기 코크와 중간밸브를 잠그시고 용기 밸브도 차단하세요. 8.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바닥에 남아있는 가스(LPG)를 빗자루나 방석으로 방 쓸 듯이 내보내세요 9. 환풍기, 선풍기 등 전기기구 스위치를 끄거나 켜지 말고 즉시 가스판매소나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에 연락하여 안전점검을 받으세요.
방사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벨을 누르고 도움을 줄 사람(소방공무원, 활동보조인)을 기다리세요. 2.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세요. 3.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하여 지하실이나 건물의 중앙으로 대피하세요. 4. 오염 공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창문과 출입문을 닫으세요. 5. 가옥 내에 대피할 때에는 노란색 천을 걸어 건물 내에 대피하고 있음을 표시하세요. - 사무실이나 집에서 대피할 경우, 반드시 출입문을 잠그고 흰 수건이나 의류를 눈에 띄는 곳에 걸어 두어 대피 완료했음을 표시하세요. 6. 대피할 때에는 전기와 가스를 끄고 수도꼭지를 잠그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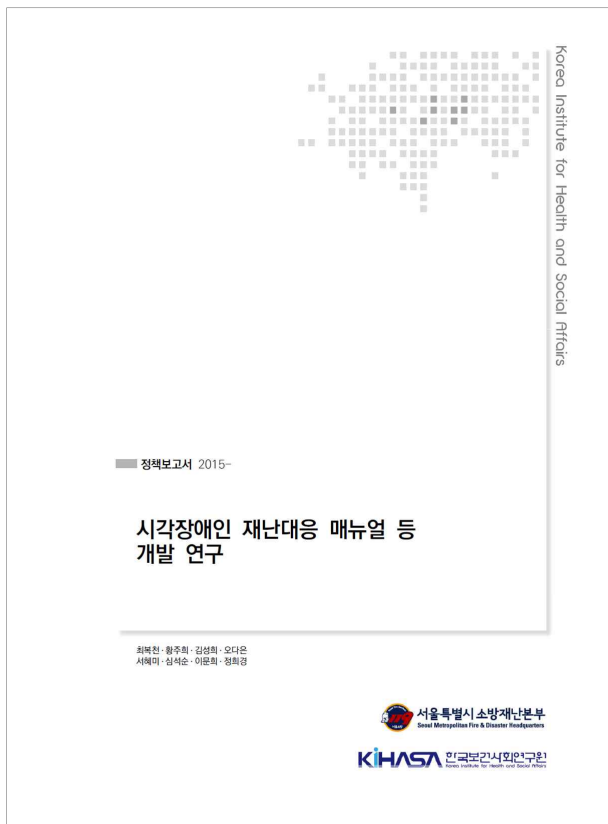
		<p>7. 자녀가 학교에 있을 경우, 학교에서 조치를 취하므로 찾아가지 마세요.</p> <p>8. 조사 활동이 끝날 때까지 관계기관 및 방재 요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세요.</p>
	전기	<p>1. 안전벨을 누르고 도움을 줄 사람(소방공무원, 활동보조인)을 기다리세요. - 도움을 줄 사람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세요.</p> <p>2. 끊어진 전선이나 들어진 전선에는 접근하거나 만지지 마세요.</p>
	가스	<p>1. 안전벨을 누르고 도움을 줄 사람(소방공무원, 활동보조인)을 기다리세요. - 도움을 줄 사람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세요.</p> <p>2.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누출 가스를 밖으로 몰아내고 신선한 공기로 환기시키세요.</p>
	정전	<p>1. 안전벨을 누르고 도움을 줄 사람(소방공무원, 활동보조인)을 기다리세요. - 도움을 줄 사람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세요.</p> <p>2. 아파트는 단지 내 선로 및 전기설비의 고장일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세요.</p> <p>3. 아파트는 단지 내 선로 및 전기설비의 고장이 아닌 경우,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에 연락하세요.</p>
	승강기	<p>1. 안전벨을 누르고 도움을 줄 사람(소방공무원, 활동보조인)을 기다리세요. - 사고 발생 시 움직이지 마세요.</p> <p>2.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추거나 실내등이 꺼지면 침착하게 인터폰 및 비상벨 누르세요.</p> <p>3. 굉음이 들리거나 진동이 있으면 인터폰 및 비상벨 누르세요.</p>
발생 후	태풍	<p>1. 도로, 상수도가 파손된 경우 시·구청 재난부서에 문의하세요.</p> <p>2. 물은 반드시 끊어서 드세요</p> <p>3. 침수된 집안은 환기 후 들어가고, 전기·가스·수도 시설은 손대지 말고 업체에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세요. - 보수, 복구 시 사진 촬영 후 보관하세요.</p> <p>4. 감전 위험이 있으니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에는 접근하지 마세요.</p>
	전기	<p>1. 가옥이 침수되었을 때에는 개폐기를 내려 두고 전기공사 업체에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세요.</p> <p>2. 침수된 가옥 수리 시 손상된 전선은 교체하고 가옥과 배선 부분이 완전히 건조된 후 사용하세요.</p> <p>3. 넘어진 전주·가로등 등 파손된 전기시설물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고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에 신고하세요.</p>

3. 장애인 재난 안전 관련 매뉴얼

가. 시각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등 개발 연구 : 보건사회연구원

1) 자료 소개

〈그림 5. 시각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등 개발 연구 표지〉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의 의뢰로 진행한 총 22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로 시각장애인의 재난 및 안전사고에 관한 어려움 및 지원 요구 파악, 대처방법 등을 정리해,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조력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의 기초 자료로 제안했다.

재난에 대한 기본 개념과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된 주요 법률과 자치법규, 서울시 장애인의 재난사고 통계와 주요 재난 상황에 관한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소개하는 데에 배경 언급을 할애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와 재난 관련 전문가 등 총 19명과 FGI를 진행했다. 시각장애인이 재난

상황에서 느끼는 인식과 대처능력, 후각과 청각 능력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한계성 등을 청취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화재, 지하철 승강장 사고, 보행사고 등 3가지 유형의 사례를 조사하고, 사회재난 7가지와 자연재난 8가지를 기반으로 한 대비 요령을 다뤄 시각장애인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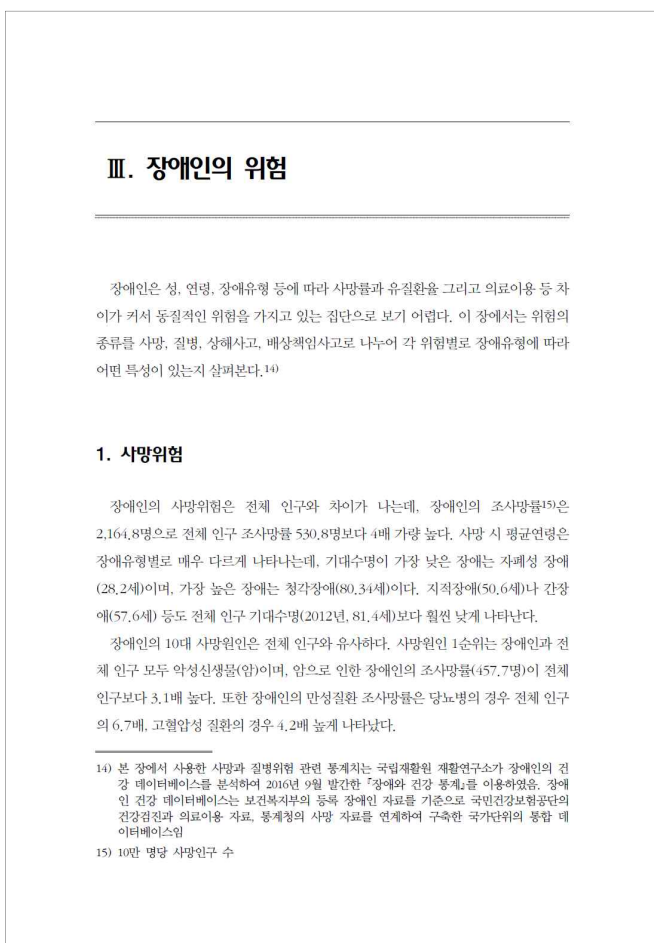
2) 분석 소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발간의 재난대응 매뉴얼에 유용하게 참고된 바 있으나,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았다는 한계가 아쉬웠다.

나. 장애인의 위험 : 보험연구원

1) 자료 소개

〈그림 6. 장애인의 위험 표지〉



2018년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세 번째 챕터에 수록된 〈Ⅲ. 장애인의 위험〉은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보험의 필요성이 큰 장애인이 민영보험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현실을 지적하고, 장애인의 보장이 취약한 이유를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처한 재난 안전 부문의 통계 내용에 주목하였다.

장애인의 사망위험, 질병 위험과 함께 상해사고위험에 대한 2009~2013년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다양한 재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망률과 사망원인과의 인과를 살피는 데에 어떤 기관 자료를 참조해야 하는지 실마리를 얻고, 비장애인 통계와의 격차가 주는 시사점을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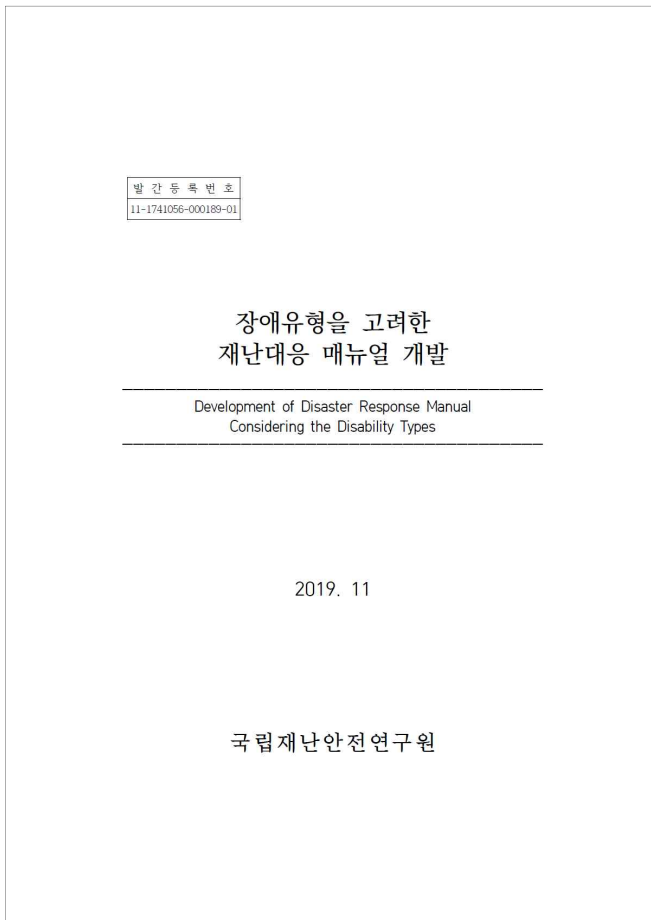
2) 분석 소결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해 비장애인이 준비할 수 있는 일반적 대응책은 통상 민간보험 가입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민간보험 시장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초대받지 못하는 손님이고, 좀처럼 진입장벽이 낮아지지 않는 배경에 바로 통계적 비극이 숨어 있었다. 장애 유형에 따른 재난상황별 대응역량 강화의 길을 열어 주면, 위급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생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안전을 바탕으로 통계 격차를 줄여 실질적 장애인 복지가 향상되는 결과가 예측되었다.

다. 장애 유형을 고려한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1) 자료 소개

〈그림 7. 장애 유형을 고려한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표지〉



2019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발간한 총 123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로써, 주로 장애인의 거주·이용시설 형태에 따른 재난 안전 시나리오 도출에 중점을 두고 작성되었다. 관계 기관의 재난 대응 훈련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기존 매뉴얼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또 기관의 종사자와 전문가 FGI를 통해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재난 안전 부문 개선점을 찾는 데에 주력하였다. 장애유형별 재난 대응 매뉴얼에 적합한 내용을 정제해, 핸드북 형태 책자로 연구의 결과를 다듬었다.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아동 전문 통합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시설 현황을 살피고, 장애인을 위한 더 나은 재난 안전 매뉴얼이 필요하다면 많은 장애인이 시간을 함께 공유하며 생활하는 기관에서 더 유용한 내용을

을 만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 주고 있다.

2) 분석 소결

최근 장애계는 탈시설 정책 실현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상기 연구자료에서 파악한 바와 같이 장애인을 위한 공동시설 또는 기관의 운영이 곳곳에 존재하지만, 앞으로도 자립생활에 나선 장애인이 더욱 증가할 것이고 시설도 점차 지역사회 통합 형태로 발전해 감소해갈 것이기 때문에 재난 안전 매뉴얼도 탈시설 방향성을 갖고 연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라. 장애인 지원 유형별 재난 안전 가이드 : 한국장애인개발원

1) 자료 소개

〈그림 8. 장애인 지원 유형별 재난 안전 가이드 표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총 5종 구성의 <장애인 재난 안전 가이드>로 ‘장애인 지원 유형별 재난 안전 가이드’라는 수식을 달아,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대피 및 구조에는 다른 사람의 지원이 수반된다는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1편은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2편은 계단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3편은 시각정보 습득이 어려운 장애인, 4편은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장애인, 5편은 음성을 통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가이드로 나누어져 있다. 법정 장애 유형에 구애받지 않고, 저마다의 재난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을 고민한 점이 돋보인다. 매뉴얼은 쉬운 그림과 짧은 글로 이루어져 있어, 비단 지적장애인을 고려한 것이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구성으로 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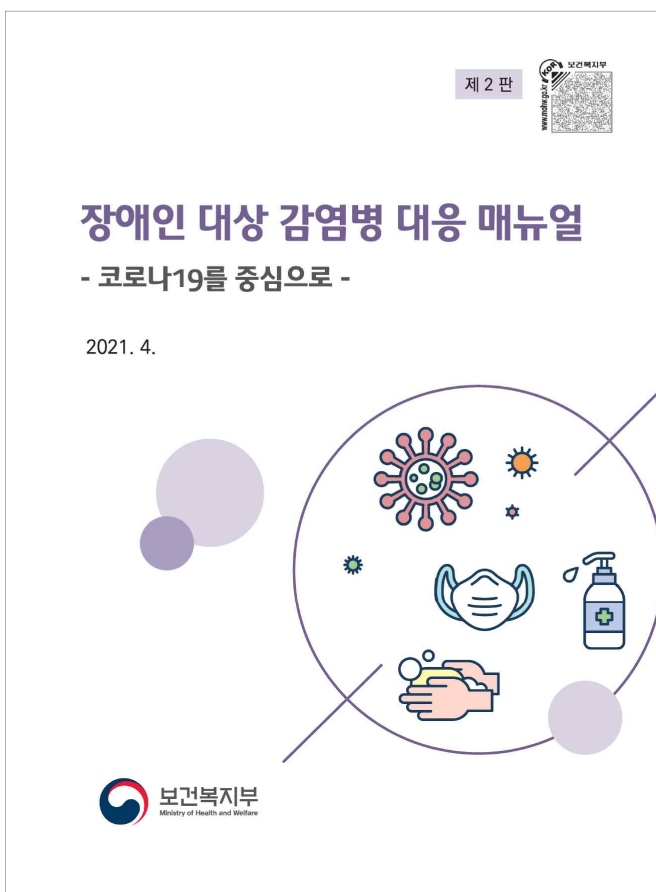
2) 분석 소결

본 연구를 기획하면서 해소하고자 했던 가장 큰 결핍은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 매뉴얼의 부재에 대한 것이었다. 상기 자료는 재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 차이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능력 차이에 따라 대응방법을 찾게 한다는 데에 효율성은 있으나, 각 장애 유형의 당사자가 자신을 위한 매뉴얼로 안심하고 수용하기에는 다소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자료이기 때문에 매뉴얼 제작 및 기존 매뉴얼 고도화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 보건복지부

1) 자료 소개

〈그림 9.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표지〉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4월 발간한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은 세계적 감염병 코로나19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감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장애인이 갖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WHO에서 권고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장애인 고려사항을 적극 수용한 점이 눈에 띈다.

주요 장애인복지 서비스별로 대응 지침을 하나하나 짚어주는 내용에 해소되는 부분은 많지만, 수요자가 아닌 정책 공급의 입장에서 서술된 내용이 많아 다른 매뉴얼들과 마찬가지로 장애 유형에 따른 갈증은 있다.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기본으로 신규대비표와 안내서, 선별진료소 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 시각지원판, 그리고 예방접종센터의 의사소

통 도움 그림글자판, 시각지원판으로 제공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동안 장애인단체 등이 줄곧 요구해온 개선정책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지원과 적절한 치료, 사후 관리 등이었다. 일반적 설명이 실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체감으로 다가오지 않는 점이 아쉬웠으며, 수요자 관점에서 알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담아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분석 소결

세련된 매뉴얼과 관계 당국의 현실 대응 간 괴리가 큰 것은 곧 매뉴얼을 위한 매뉴얼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VI. 당사자 관점에서 본 문제점 및 제언 : FGI

1. 서울시 장애인 재난 안전실태에 관한 이용자 심층 면접

가. 심층 면접 진행 개요

1) 심층 면접 기획

본 연구 당사자인 서울시 등록장애인의 직접적 의견 청취를 통해 장애인 재난 안전에 관한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고, 장애유형별로 지적하는 문제점과 대안을 분석하기 위해 심층 면접을 기획 및 진행하였다.

가) 심층 면접 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상 15개 장애 유형 당사자

나) 진행 단위 및 회수, 규모 : 5인 1조×4회=총 20명

2) 심층 면접 참여자 섭외

참여자는 7월 11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 소재 복수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의 협조를 받아 모집되었다. 언어장애의 경우 청각장애 참가자 1인이 중복장애로 가지고 있어 관련 의견을 청취했으며, 자폐성장애는 의견교환이 가능한 당사자를 기한 내에 섭외하지 못했다.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등의 내부장애는 재난 안전 정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견교환하고자 하는 대상을 찾지 못했으며, 안면장애 역시 같은 이유로 섭외에 이르지 못했다. 단, 심층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재난 상황 이외에 필요한 정책 의견을 전해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최종 섭외된 참여자 장애유형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참여자 중 청각장애와 언어장애 중복으로 서면 인터뷰를 요청한 1인은 요청에 따라 진행하였다.

〈표 34. 심층 면접 참여자 및 장애 유형 현황〉

장애 유형	참여 인원	비고
1. 지체	3	안○환(심한 장애), 목발 이용 이○훈(심한 장애), 전동휠체어 이용 정○석(심한 장애), 수동휠체어 이용

2. 뇌병변	4	이○주(심한 장애), 지적장애 중복 임○이(심한 장애), 전동휠체어 이용 전○영(심한 장애), 전동휠체어 이용 정○근(심한 장애), 전동휠체어 이용
3. 시각	1	엄○수(심하지 않은 장애)
4. 청각	3	유○희(심하지 않은 장애) 임○진(심한 장애) 정○인(심한 장애), 언어장애 중복
5. 언어	-	-
6. 지적	4	박○현(심한 장애), 뇌병변장애 중복 변○영(심한 장애) 서○산(심한 장애) 이○형(심한 장애)
7. 자폐성	-	-
8. 정신	2	김○성(심한 장애) 나○진(심한 장애)
9. 신장	2	박○옥(심한 장애), 전동스쿠터 이용, 지체장애 중복 이○형(심하지 않은 장애)
10. 심장	-	-
11. 호흡기	-	-
12. 간	-	-
13. 안면	-	-
14. 장루·요루	-	-
15. 뇌전증	1	변○경(심하지 않은 장애)

3) 심층 면접 진행

심층 면접 장소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누리평생교육원 비채홀이였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다음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표 35. A조 심층 면접 개요〉

구분	일시	참가자
A조	2022.08.02. (화) 13:00~15:00	나○진(심한 장애) / 정신장애 이○형(심하지 않은 장애) / 신장장애 엄○수(심하지 않은 장애) / 시각장애 이○주(심한 장애) /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임○이(심한 장애), 전동휠체어 이용 / 뇌병변장애

〈그림 10. A조 심층 면접 사진〉



〈표 36. B조 심층 면접 개요〉

구분	일시	참가자
B조	2022.08.03. (수) 18:30~20:30	변○경(심하지 않은 장애) / 뇌전증장애 안○환(심한 장애), 목발 이용 / 지체장애 이○훈(심한 장애), 전동휠체어 이용 / 지체장애 전○영(심한 장애), 전동휠체어 이용 / 뇌병변장애 정○석(심한 장애), 수동휠체어 이용 / 지체장애

〈그림 11. B조 심층 면접 사진〉



〈표 37. C조 심층 면접 개요〉

구분	일시	참가자
C조	2022.08.05. (금) 18:30~20:30	김○성(심한 장애) / 정신장애 변○영(심한 장애) / 지적장애 서○산(심한 장애) / 지적장애 임○진(심한 장애) / 청각장애 정○근(심한 장애), 전동휠체어 이용 / 뇌병변장애

〈그림 12. C조 심층 면접 사진〉



〈표 38. D조 심층 면접 개요〉

구분	일시	참가자
D조	2022.08.08. (월) 10:00~12:00	박○옥(심한 장애), 전동스쿠터 이용 / 신장장애, 지체장애 박○현(심한 장애) /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유○희(심하지 않은 장애) / 청각장애 이○형(심한 장애) / 지적장애 [서면 인터뷰] 정○인(심한 장애) / 청각장애, 언어장애

〈그림 13. D조 심층 면접 사진〉



나.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실태 및 문제 인식 분석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실태와 문제 인식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주요 재난 상황을 12개 범주로 나눴으며, 분류 기준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재난예방 대비→국민행동요령]에 구분된 항목을 참고해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39. 장애인 재난 안전실태 및 문제 인식 분석을 위한 주요 재난 상황 설정 기준〉

구분	재난 상황	설정 사유
생활안전	① 화재	빈도가 높고, 화재 발생 시 신고, 초기진화, 대피 등의 장애유형별 대응책 부족
	② 전기/정전사고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호흡보조기 등 전기를 이용한 보조구 사용 인구는 많이 증가했으나 대응 매뉴얼 부재
	③ 가스사고	관련 사고 예방에 관한 정보 부족
	④ 단수	원활한 상수도 환경으로 단수 상황에 대비한 정보 부족
	⑤ 감염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애유형별 방역, 예방, 치료 등 대응 매뉴얼 부족
	⑥ 응급상황	특별한 대응요령이 필요하거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유형(뇌전증 및 시각, 청각, 언어 등)을 위한 매뉴얼 부재
자연재해	⑦ 폭염	장애유형별로 겪는 애로사항 정보 부족
	⑧ 한파/대설	장애유형별로 겪는 애로사항 정보 부족 및 보조구 이용 장애인의 외출 대응책 부재
	⑨ 황사/미세먼지	호흡기장애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부재
	⑩ 지진/산사태/낙뢰	낮은 빈도로 관련 대응 및 예방 지식 부족
	⑪ 태풍/폭우	일반적 재난대응 상식 외에 장애유형별 사후 관리에 대한 정보 부족
	⑫ 홍수/해일	일반적 재난대응 상식 외에 장애유형별 사후 관리에 대한 정보 부족

심층 면접에 참여한 9개 장애유형별 참가자들의 재난 안전 기본 인식과 정책 제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지체장애

가) 기본 인식 및 제언

〈표 40. 심층 면접 참여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 기본 인식 및 제언-지체장애〉

장애 유형	재난 상황	재난 안전 관련 기본 인식 및 제언
지체장애	① 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대 때 할머니댁 비닐 움막에서 자다가 합선으로 인한 화재사고를 경험했는데, 손에 장애가 있어 소화기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했다. - 아파트 거주 장애인 가정에는 베란다에 대피시설, 고층 건물의 경우 지체장애인을 위해 대피용 리프트 설치가 필요하며, 투척형 소화기를 지원해야 한다. - 보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탈착에 20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 - 휠체어 사용자는 화재로 휠체어 탑승 및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스스로 기립할 수 없어 기어서 대피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 소화기 사용법을 알아도 근력이 부족해 작동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 - 고층 건물의 경우 장애인의 안전을 먼저 살피고 대피를 도울 수 있는 안전요원 배치가 필요하다. - 화재경보기 오작동의 경우, 오작동 여부를 명확하게 안내해주지 않아 불안했던 경험이 있다. - 아파트 및 건물의 경우 대부분의 화재 비상벨이 복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집안이나 사무실 내에도 비상벨 설치가 필요하다.
	② 전기/정전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은 정전 시 암전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충전이 필요한 보장구 이용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아 가정용 소형발전기를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 - 집안에 비상 조명등이 기본 설치되어야 한다. - 전기사고가 곧장 화재로 번질 수 있어 관련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휠체어 사용자는 외출이 불가능해 고립 상황에 따른 지원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③ 가스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재빠른 환기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산소마스크 비치로 버틸 시간을 줘야 한다. - 가스 밸브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가스 누출이 발생할 경우 경보음을 울리거나, 가스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설비가 필요하다.

④ 단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량의 무거운 생수를 구매해오기 어려워 장애인 가정에 119 연계로 긴급 용수 우선지원이 필요하다. - 단수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장애인 가정을 위한 예비식수 지원이 필요하다.
⑤ 감염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 중에 필요한 의약품 및 식료품을 원활히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 확진된 중증장애인의 격리 시엔 방호복을 착용한 활동지원사 지원 또는 식사 및 신변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담 병원으로의 안전한 후송과 간병이 필요하다. - 확진으로 인한 격리 시 약품 지원이 원만하지 않았다. - 지자체에서 확진 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거소 분리 등 방역 보호조치나 안내가 없었다. - 확진된 중증장애인의 보호자가 코로나에 취약한 고령일 경우 감염 우려로 인해 매우 위험해, 중증장애인이 치료시설로 안전하게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⑥ 응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 및 터널의 일정 구간마다 긴급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건물과 공도의 일정 구간에 소화전, 심장제세동기 등이 설치되어있는 것처럼 실외 보도의 일정 구간에도 위급상황에 대비할 구급용품이 필요하다. - 긴급상황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버튼형, 목걸이형, 시계형, 뱃지형 호출기를 지급해야 한다. - 기존 정책에 따라 지급하는 긴급호출기는 집안에서만 작동하는 한계가 있어, 외출 시에도 작동했으면 좋겠다.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병원 이송 시 휠체어와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 부재하다. - 중증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전문 의료시설이 부족하다. - 휠체어 이용자 사고 시 사용 중이던 휠체어를 임시보관하거나 동시 이송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 구급대원과 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유형별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 매뉴얼이 필요하다.
⑦ 폭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열병을 예방할 수 있는 시원한 의류(얼음조끼 등) 지원이 필요하다. - 외출이 위험할 때 안내해주는 문자서비스를 정확하고 쉽게 안내해줬으면 좋겠다.
⑧ 한파/대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상 및 저체온증을 예방할 수 있는 물품(온열 방석 등)이나, 폭설 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천막, 바퀴 체인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 폭설 중 휠체어 사용자의 출퇴근, 등하교 안전을 위해, 제설작업 및 안전요원을 지원해야 한다. - 폭설 시 이동지원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 필요하다.

⑨ 황사/미세먼지	- 대기오염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장애유형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⑩ 지진/산사태/낙뢰	- 해당 재난에 관한 대응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장애유형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 대부분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 계단을 두고 있는 방공호나 대피소에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외상장애인의 안전한 이동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재난 발생 이후의 장애인 이재민을 위한 복구 매뉴얼이 필요하다.
⑪ 태풍/폭우	-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의 안전을 살피, 사전대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⑫ 홍수/해일	- 상습 침수지역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안전실태 조사와 대피 매뉴얼이 필요하다. - 장애인을 위한 생존 수영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2) 뇌병변장애

가) 기본 인식 및 제언

<표 41. 심층 면접 참여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 기본 인식 및 제언-뇌병변장애>

장애 유형	재난 상황	재난 안전 관련 기본 인식
뇌병변장애	① 화재	- 약력이 약해 소화기를 사용할 수 없다. - 화재를 진화하려다 장애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화상을 입은 경험이 있다. - 중증장애인이 화재 피해를 입은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복구 및 재기가 더욱 힘들어 신속하고 충분한 금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중증장애인 가정의 경우 소방안전 점검을 자주 시행해야 한다. - 화재 시 활동지원사의 안전대응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 구조대가 올 때까지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는 산소 마스크, 화염 가리막 등을 지원해주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 - 고층 건물의 경우 화재 시 대피를 위한 미끄럼틀 설치가 필요하다. - 2층 이상 건물의 경우 층간 경사로 또는 일정 층수마다 외부 탈출이 쉬운 승터 설치의 의무화를 해야 한다.

② 전기/정전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전차단기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충전을 매일 해야 하므로 전기 사용에 대한 정기적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 장애인은 정전 시 암전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충전이 필요한 보장구 이용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아 가정용 소형발전기 지원 또는 매일 충전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임시 대여가 필요하다. - 장기간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휠체어 사용자는 외출할 수 없어 고립 상황에 따른 지원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 중증장애인 가정의 정전사고 대비 휴대용 손전등 보급이 필요하다. - 평소 정전 시 충돌로 위험할 수 있는 벽 모서리에 야광 및 형광 표식을 부착해두고 있다. - 비상구 조명을 장애인 눈높이에 맞게 설치했으면 좋겠다.
③ 가스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가 장기간 중단될 경우 음식 조리 등을 위해 휴대용 가스 또는 프로판가스 임시 지원이 필요하다. - 점화형 가스레인지 사용 가정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인덕션 레인지로 교체하는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④ 단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수가 장기간 이어지면 장애인 가정을 위한 예비식수 지원이 필요하다. - 단수 예정 시 욕조에 물을 받아두어야 하는 내용을 미리 안내한다.
⑤ 감염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 중증장애인의 격리 상황을 고려해 생필품을 배달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 확진 장애인의 격리 중 도서, 영화 등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⑥ 응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또는 응급상황에 따라 수입이 중단되었을 때 긴급생계지원금이 절실하다. - 경증 뇌병변장애인도 응급상황 발생 시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응급상황 발생 시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스마트워치 보급이 필요하다. -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응급상황에 처할 경우를 대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DB 구축, 지문 및 태그 인식 시스템을 통해 119가 대비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 민방위 훈련처럼 장애인이 있는 공동체는 장애인 대피를 중심으로 한 정기적 훈련이 필요하다.
⑦ 폭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방기 보급 및 성능 업그레이드 지원으로 생활여건을 향상시켜 줬으면 좋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의 경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얼음조끼 등 의류 구입비 지원이 필요하다.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차양 장비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⑧ 한파/대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방기 보급 및 성능 업그레이드 지원으로 생활여건을 향상시켜 줬으면 좋겠다.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무릎담요 등의 보온용품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⑨ 황사/미세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마스크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휴대용 산소캔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⑩ 지진/산사태/낙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로 인한 중증장애인 가정의 주거지 파손으로 임시거주지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법제화해야 한다. - 매몰 사고 등을 대비해 자신의 위치를 말로 표현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비상경보기나 위치추적기를 보급해야 한다. -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우선 대피 매뉴얼을 원칙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⑪ 태풍/폭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폭우 중 대중교통 이용 시 운송종사자들이 장애인 승객의 안전을 각별히 신경써 줬으면 좋겠다. - 큰비에 손상된 도로 복구로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해줬으면 좋겠다.
	⑫ 홍수/해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자구력이 낮아 구조 시점까지 버틸 방법을 교육하는 게 필요하다.

3) 시각장애

가) 기본 인식 및 제언

〈표 42. 심층 면접 참여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 기본 인식 및 제언-시각장애〉

장애 유형	재난 상황	재난 안전 관련 기본 인식
시각장애	① 화재	- 화재 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정기적 훈련이 필요하다.
	② 전기/정전사고	- 전기제품을 만질 때의 감전 우려가 있고, 착오로 인해 엉뚱한 콘센트를 뽑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다.
	③ 가스사고	- 가스 밸브 상태를 손으로 만져야 알 수 있어 쉽게 확인 가능한 곳에 있어야 한다.

④ 단수	- 특별한 우려 없음.
⑤ 감염병	- 확진 후 생활수칙이나 약물에 관한 자세한 점자 안내가 필요하다.
⑥ 응급상황	-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자 블럭 설치로 낙상이나 실족, 충돌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점자블럭 설치에 관한 법률 준수 및 상시 시설점검이 중요하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나비콜의 경우 경증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어, 경증도 응급상황 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⑦ 폭염	- 장애인을 위한 냉방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⑧ 한파/대설	- 장애인을 위한 난방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 쌓인 눈으로 점자 블럭의 구분이 안 되거나 노면이 얼어 보행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보행 안전에 많은 걱정을 느낀다.
⑨ 황사/미세먼지	- 안전한 마스크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⑩ 지진/산사태/낙뢰	- 특별한 우려 없음.
⑪ 태풍/폭우	-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⑫ 홍수/해일	- 특별한 우려 없음.

4) 청각장애

가) 기본 인식 및 제언

〈표 43. 심층 면접 참여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 기본 인식 및 제언-청각장애〉

장애 유형	재난 상황	재난 안전 관련 기본 인식
청각장애	① 화재	- 전화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119 신고를 정확히 할 수 있을지 걱정이며, 가족이 함께 있으면 부득이 도움을 받을 것 같다. - 시각적으로 화재 알림을 확인할 수 있는 화재감지기를 한 가정당 1개만 보급해, 거실만 설치될 경우 각 방에 있는 청각장애인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 분리된 방이 여

		<p>렸인 경우 화장실을 포함해 방 숫자만큼 설치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감지기를 스마트폰과 연동해, 어디서든 진동으로 알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기적 화재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 건물 모서리 등에 야광, 형광 표식을 두어, 청각장애인이 혼자 고립되었을 때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표식이 있어야 한다.
	② 전기/정전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방법을 교육받은 바 없어 가족에게 도움을 청할 수 밖에 없다. - 건물 모서리 등에 야광, 형광 표식을 두어, 청각장애인이 혼자 고립되었을 때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표식이 있어야 한다. - 전기사고에 관한 안전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손전등과 같은 구호 용품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가스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 누출 우려로 가열 수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덕션 레인지를 선호한다. - 가스안전 설비 및 가스 누출 여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감지기 설치 지원이 필요하다.
	④ 단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방법을 교육받은 바 없어 가족에게 도움을 청할 수 밖에 없다.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단수 상황 발생 시 안내 방송을 하지만, 청각장애는 들을 수 없어 문자 알림이 필요하다.
	⑤ 감염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해 소통에 어려움이 많다. 청각장애인이 상대방의 입술을 눈으로 파악하는 구어를 위해 투명마스크 사용 캠페인을 하지만, 투명마스크도 상대방의 입모양을 파악하기엔 크게 불편하다. - 모두가 수어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알아듣는 것은 아니라, 정부의 코로나19 브리핑을 이해하기 어렵다. - 감염 우려로 확진 장애인에게 수어통역사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 - 청각장애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한시적으로라도 투명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 확진으로 자가격리 된 경우 정보의 부족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⑥ 응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교통사고 경험 시 의료진의 설명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어려운 적이 있었고, 병원 측에서도 청각장애가 있는 환자가 자신의 아픈 상태와 치료과정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구급대원이 수어를 못하기 때문에

		필담으로 어렵게 소통한다. - 청각장애인에게도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
⑦ 폭염		- 폭염 특보 등의 정보가 문자와 수어로 자주 전달되어야 한다.
⑧ 한파/대설		- 한파 및 대설 특보 등의 정보가 문자와 수어로 자주 전달되어야 한다.
⑨ 황사/미세먼지		- 특별한 우려 없음.
⑩ 지진/산사태/낙뢰		- 해당 재난 상황 대응요령에 대해 교육받은 적이 없다.
⑪ 태풍/폭우		- 대피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들리지 않는 방송 일기 예보보다 텍스트로 된 인터넷 정보에 의존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⑫ 홍수/해일		- 대피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들리지 않는 방송 일기 예보보다 텍스트로 된 인터넷 정보에 의존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5) 언어장애

가) 기본 인식 및 제언

〈표 44. 심층 면접 참여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 기본 인식 및 제언-언어장애〉

장애 유형	재난 상황	재난 안전 관련 기본 인식
언어장애	① 화재	- 119에 영상으로 수어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상담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② 전기/정전사고	- 수어통역사가 없으면 전기 이상 문제에 대해 AS기사에게 필담으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있다.
	③ 가스사고	- 특별한 우려 없음.
	④ 단수	- 특별한 우려 없음.
	⑤ 감염병	- 확진 시 증상을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지 우려된다. - 감염병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⑥ 응급상황	- 수어를 할 수 없게 손과 팔 등에 부상을 입었거나, 수어를 쓸 수 없는 상황이면 119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수어통역사가 없으면 아프거나 다친 상태를 신속히 전달하기 어렵다.
	⑦ 폭염	- 특별한 우려 없음.
	⑧ 한파/대설	- 특별한 우려 없음.
	⑨ 황사/미세먼지	- 특별한 우려 없음.
	⑩ 지진/산사태/낙뢰	- 매몰 시 본인의 위치를 알리거나 대피 시 안전한 장소를 묻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
	⑪ 태풍/폭우	- 안전사고를 당하면 본인의 상태를 알리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
	⑫ 홍수/해일	- 침수 시 본인의 위치를 알리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

6) 지적장애

가) 기본 인식 및 제언

〈표 45. 심층 면접 참여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 기본 인식 및 제언-지적장애〉

장애 유형	재난 상황	재난 안전 관련 기본 인식
지적장애	① 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시설에서 생활할 때 두 차례 화재를 겪은 경험이 있다. 화재 발생 시 외상장애인을 업고 대피하는 등 인명피해 없이 대처했는데, 월 1회 화재대응훈련을 가졌다. - 소방서에서 가정용 비상벨 설치 지원 제안이 있었다. - 119 신고하는 방법과 최대한 빨리 도망가는 경로를 훈련시켜야 한다. - 1층 또는 옥상으로 대피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 손수건을 물에 적서 입을 가리고 대피하는 기본 행동요령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한다. - 반복 교육해도 소화기 사용법을 잘 모른다.
	② 전기/정전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조치는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기기사를 불러 해결하도록 한다. - 장애인 가정의 정전을 대비한 손전등을 지원해야 한다. - 누전차단기 살펴보는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 정전사고를 대비한 손전등 등이 포함된 재난안전 키트를 보급했으면 좋겠다.

③ 가스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 누출 의심 시 곧바로 가스 밸브를 잠그고, 도시가스공사에 신고하도록 한다. - 안전을 위해 지적장애인 가정의 가스 정기점검이 필요하다. - 만일을 대비해 가스 사용 전 환기의 중요성을 반복 교육했으면 좋겠다.
④ 단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수 기간이 장기화되면 욕조에 물을 받아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역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도움을 청할 수 있게 가르쳐 줘야 한다. - 긴급 생활용수 지원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겨울철 단수 시 수도 동파 예방을 위해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두는 등의 기본 대처 요령을 알기 쉽게 교육했으면 좋겠다.
⑤ 감염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진으로 10일간 격리 경험이 있는데, 격리 기간 소통의 단절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껴졌다. - 고열에 무기력 등 증상이 발현되었으나 병원 방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 안전한 마스크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TV를 통해 주요 방역수칙을 반복적으로 접해서, 관련 정보에 대해 익숙하다.
⑥ 응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상사고를 당했을 때 이웃의 도움이 컸는데, 평상시 관련 대응훈련을 가졌으면 좋겠다. - 장애인의 낙상사고 등의 안전을 위해 비상벨 설치가 필요하다. - 병원에서 어디가 아픈지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 치료과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 초등학교 때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다발성 골절을 경험했는데, 사고를 낸 트럭 운전기사가 병원으로 후송했다.
⑦ 폭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장애인에게 여름철 이불이나 의류의 위생관리가 어려운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정기적 위생점검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 걱정 없는 냉방비 지원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적장애인은 냉방기기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아 전기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올바른 사용법 교육이 중요하다. - 온열 질환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 활동량이 많아 더위에 취약해 냉방비 지원이 필요하다.
⑧ 한파/대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걱정 없는 난방비 지원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중증장애인 대상 난방비 바우처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 지적장애인은 난방기기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아 가스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올바른 사용법 교육이 중요하다. - 한랭 질환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⑨ 황사/미세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청정기 지원 또는 구입비 지원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 유년 시절 천식 증상으로 매우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 일기예보를 참고해 생활하면서 관련 정보가 어렵지는 않았다. - TV 뉴스를 통해 손 씻기 및 환기의 중요성을 들었지만, 설명에 대해선 이해가 어려웠다. 황사와 미세먼지 대응 방법에 대한 알기 쉬운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⑩ 지진/산사태/낙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장애인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할 수 있는 도움을 줘야 한다. - 학교나 TV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대피 요령에 대해 꾸준한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하다. - 시설에서 안전교육을 해줬으나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대략적인 설명만 있어 아쉬웠다. - 지진 발생 시 책상 밑으로 숨는 등의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
	⑪ 태풍/폭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 경험이 2회 있다. - 침수피해에 따른 경제적 위험이 없도록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 - 강풍에 대비해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의 대응요령을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⑫ 홍수/해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수피해에 따른 경제적 위험이 없도록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 - 침수피해 시 중증장애인 가정 자동배수기 우선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지적장애인을 위한 쉬운 설명의 재난 안전 문자가 제공되면 좋겠다.

7) 정신장애

가) 기본 인식 및 제언

〈표 46. 심층 면접 참여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 기본 인식 및 제언-정신장애〉

장애 유형	재난 상황	재난 안전 관련 기본 인식
정신장애	① 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시 화상으로 위험한 사람보다 질식으로 인해 위험한 사람이 많으니, 안전교육에 질식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해서 알려 줬으면 좋겠다. - 조현병의 경우 상황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화에 대한 안내보다 신속한 대피 위주의 교육 및 훈련이 중요하다.

② 전기/정전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장애인의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들고 불안이 커지기 때문에 정전 상황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 정신장애인의 주의집중이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자동으로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설비가 필요하다.
③ 가스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용 가스 지원이 필요하다. - 주의집중이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자동으로 가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설비가 필요하다.
④ 단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 용수 및 생수 지원이 필요하다.
⑤ 감염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장애인을 위한 생활치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다. - 코로나19 확진으로 의료시설에 격리치료 된 적이 있는데, 정신장애인에게 통일된 의상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⑥ 응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현병의 경우 전신마취 수술이 좋지 않다고 하여,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분마취로 진행해 어려움이 있었다. 마취와 정신장애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
⑦ 폭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면 시 냉방이 원활하지 않으면, 수면 부족으로 컨디션이 악화될 수 있다.
⑧ 한파/대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면 시 난방이 충분하지 않으면, 수면 부족으로 컨디션이 악화될 수 있다.
⑨ 황사/미세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 또는 구입비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⑩ 지진/산사태/낙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 피해로 교통 및 의료기관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의약품 수급이 지연될 수 있는데, 정신장애인에게 약물 제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정신장애인은 약물을 못 먹으면 크게 위험해질 수 있어 다니는 병원 외에도 의약품 처방 정보가 공유되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해외 정신장애 의료기관에 머무는 동안 지진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외부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서 매우 공포스러웠다.
⑪ 태풍/폭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으로 인한 약물 수급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체계를 점검한다.
⑫ 홍수/해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수 사고 등이 발생해 약물이 소실될 경우를 대비한 긴급 약물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8) 신장장애

가) 기본 인식 및 제언

〈표 47. 심층 면접 참여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 기본 인식 및 제언-신장장애〉

장애 유형	재난 상황	재난 안전 관련 기본 인식
신장장애	① 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전 가스레인지 화재로 놀란 일이 있는데, 보행이 어려운 데에다가 소화기 위치까지 기억나지 않아 큰불이 났었다. - 이웃의 도움으로 불은 조기 진화했지만, 119가 도착하기 전 초기 대응에 조금만 더 늦었다면 아찔한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었다. 더욱이 신장투석 중에 화재를 만났다면, 별다른 조치도 못하고 생명까지 위협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 경각심이 높아졌다. - 사후 복원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장애인 가정이 화재를 겪으면 청소 및 복구를 돕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 투석 중에는 대피를 할 수 없다.
	② 전기/정전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발장, 싱크대, 서랍장 등 곳곳에 양초와 손전등을 모두 비치해 두었다. - 정전사고 시 비장애인인 자녀가 누전차단기를 살펴본다. - 정전이 장기화되면 엘리베이터가 멈춰 전동스쿠터로 외출이 불가능하다. - 정전으로 인한 냉장고 작동 정지 시 음식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 정전 시 투석이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해 예비발전기 체계가 잘 갖춰져야 한다.
	③ 가스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주거지에서 도시가스 문제로 불편이 많았다. - 가스 중단 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버너를 비치하고, 가스 밸브에 비눗물을 발라 점검한다. - 인덕션 레인지 교체 또는 휴대용 버너 지원이 필요하다.
	④ 단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장장애로 거동이 여의치 않으니, 단수가 장기화되면 지자체에서 생수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 예비 식수 지원이 필요하다.
	⑤ 감염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일에 대비해 집에서 환기를 자주 하는 편이다. - 신장장애인은 투석을 위해 지정병원만 방문해야 하는데, 해당 병원이 코로나19로 운영에 지장이 있을까 늘 걱정이다. - 신장장애인의 컨디션 난조로 발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코로나19 검사로 조치가 늦어져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신장장애 관련 응급조치를 우선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⑥ 응급상황	- 장애인의 장애 정보가 119에 기본 등록되어, 신고 시 구급대원이 자동으로 인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신장장애의 경우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휴대용 비상벨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⑦ 폭염	- 신장장애인은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되는데, 무더위가 심하면 탈수를 걱정하면서 수분 섭취 조절에 어려움이 크다. - 탈수 증세를 예방할 수 있도록 얼음조끼 등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⑧ 한파/대설	- 신장장애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수족냉증이 일어날 수 있어, 손난로, 수면 양말 등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⑨ 황사/미세먼지	- 공기청정기 지원 또는 구입비 지원이 필요하다. - 안전한 마스크 지원이 필요하다.
	⑩ 지진/산사태/낙뢰	- 투석 중에 지진이 발생하면 119의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 대피 병원 또는 대피소, 방공호 등에서 투석을 하기엔 고가의 장비 설치 및 위생 면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 재난 상황으로 인해 투석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면, 신장이 더 망가지거나 생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애써 이식수술을 통해 장애 정도가 나아진 신장장애인도 다시 심한 장애로 악화될 수 있다.
	⑪ 태풍/폭우	- 태풍으로 교통여건이 안 좋아졌을 때 투석을 위한 병원 이송에 무리가 없도록 원활한 구급차 연결이 필요하다.
	⑫ 홍수/해일	- 재난 상황으로 투석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면 안전하게 투석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재난 상황 시 투석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면 응급 투석 등 의료지원을 위한 비상연락망 구축 및 지역 의료기관 투석 병상의 실시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9) 뇌전증장애

가) 기본 인식 및 제언

〈표 48. 심층 면접 참여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 기본 인식 및 제언-뇌전증장애〉

장애 유형	재난 상황	재난 안전 관련 기본 인식
-------	-------	----------------

뇌전증장애	① 화재	- 발작 증세 이후 한동안 휴지기가 필요한데, 그 사이 화재가 발생하면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 뇌전증장애 1급은 하루 4~5회까지 발작이 발생해 거동이 힘들다.
	② 전기/정전사고	-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뇌전증장애 가정엔 정기점검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③ 가스사고	- 지원사업을 통해 가스레인을 인덕션 레인으로 교체해줬으면 좋겠다.
	④ 단수	- 단수 시 비상 식수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⑤ 감염병	- 감염병 확산으로 공공기관 운영이 중단되면, 사회복지사업이 마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 병원과 약국 간의 정보교류로 둘 중 하나가 운영 못해도 뇌전증장애 의약품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⑥ 응급상황	- 뇌전증장애로 인한 발작 증세 발현 시 학교 및 직장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정보제공과 훈련을 실시하고, 길에서 쓰러질 경우를 대비해 안내 표식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 119에 뇌전증장애로 신고될 경우 무리한 CT, MRI, X-ray 검사를 강행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보급되었으면 좋겠다.
	⑦ 폭염	- 기온 급상승에 따른 발작 증세가 일어날 수 있으니, 공원이나 정류장 등 주변 곳곳에 더위 쉼터가 많이 설치되면 좋겠다.
	⑧ 한파/대설	- 급격한 기온 강하로 발작 증세가 일어날 수 있으니, 공원이나 정류장 등 주변 곳곳에 몸을 녹일 수 있는 쉼터가 많이 설치되면 좋겠다.
	⑨ 황사/미세먼지	- 대기오염이 심할 경우 발작 증세가 잦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대응책에 대한 걱정이 크다.
	⑩ 지진/산사태/낙뢰	- 재난을 겪은 이후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 치료가 필요하다.
	⑪ 태풍/폭우	- 사전 대비책을 미리 숙지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⑫ 홍수/해일	- 생존 수영 교육을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다.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 정책 개선안

1) 지체장애

지체장애의 경우 대부분 이동에 제약이 커서,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안전한 이동지원에 대한 염려가 많았다. 기존에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재난대응 시설 및 장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아래의 제언들이 있었다.

- 가) 재난 안전 시설 및 장비 개선: 고층 건물 화재 시 지체장애인 대피시설 설치 (엘리베이터 이용 불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대피소 및 방공호 이동 대책 마련. 장시간 정전 시 전동 보장구 및 호흡기 사용 장애인을 위한 소형 발전기 지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손이 닿는 위치에 가스 밸브 설치. 가정 및 사무실 내 화재 발생 및 가스 누출 대비 비상벨, 비상 조명등 설치. 투척형 소화기 및 산소마스크 보급. 실내외 작동 응급호출기(버튼형, 목걸이형, 시계형, 뱃지형 등) 지원. 실외 보도 일정 구간에 구급용품 비치. 온열 및 한랭 질환 대비 체온 보호용품 지원.
- 나)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 이용: 보장구 이용 장애인의 응급상황 발생 및 감염병 확진 시 안전한 이송과 간병 지원. 사용하는 보장구의 병원 이송 또는 임시 보관 서비스 제공. 감염병 확진의 경우 가족에 대한 방역 보호조치 지원.
- 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생활 지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중 원활한 의약품 및 식료품 지원. 감염병 확진 시 전문 활동지원사 지원체계 구축. 단수 장기화 시 식수 지원. 폭설 시 중증장애인 집앞 제설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재난 상황 이후 중증장애인 이재민 지원 대책 마련.
- 라) 재난 안전 매뉴얼 보급 및 훈련: 장애유형별 재난대응 및 응급처치 매뉴얼 보급 및 교육 실시. 공동 건물에 장애인 우선 대피를 돕는 안전요원 배치. 장애유형별로 도움이 되는 재난 안내문자 서비스 제공. 생존 수영 교육 제공.

2)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의 경우 지체장애처럼 보장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동에 똑같은 어려움이 따르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재난 상황 발생 시 도움 요청을 전할 방법이 없을까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뇌병변장애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에게는 아래의 제언들이 있었다.

- 가) 재난 안전 시설 및 장비 개선: 뇌병변장애로 인한 손의 경직 또는 약한 악력으로 투척형 소화기 필요. 장시간 정전 시 전동 보장구 사용 장애인을 위한 소형발전기 또는 완충된 임시 보장구 지원. 휴대용 손전등 및 산소마스크 보급. 고층 건물 경사로 및 임시 대피소 설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손이 닿는 위치에 누전차단기 설치. 실내 야광 표식 부착. 가스레인지 사용 가정 인덕션 레인지로 교체 지원. 휠체어 사용자 눈높이에 맞는 비상구 조명 위치 조정. 응급상황 대비 스마트워치 또는 비상경보기 보급. 냉난방기기 지원 또는 성능 업그레이드 지원사업 진행.
- 나)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 이용: 경증 뇌병변장애인 응급상황 발생 시 장애인콜택시 허용.
- 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생활 지원: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에 따른 고립 상황 발생 시 생필품 지원. 확진 격리 중 문화생활 지원 정책 운영. 가스 중단 시 휴대용 가스 또는 프로판 가스 지원. 재난 피해 시 신속한 금전 지원 필요. 단수 장기화 시 식수 지원. 휴대용 산소캔 지원. 대피소 또는 방공호 장애인 편의 시설 법제화.
- 라) 재난 안전 매뉴얼 보급 및 훈련: 장애유형별 응급상황 대응법 119 DB화. 정기적 소방안전 점검 및 활동지원사 안전교육 시행. 정기적 전기안전교육 및 장애인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훈련 시행.

3) 시각장애

시각장애의 경우 시각정보 제한에 따라 겪게 될 자구력 약화를 우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안타깝게도 일상의 불편을 감내하며 지내는 데에 익숙해, 재난 상황 우려 시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었다. 시각장애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에게는 아래의 제언들이 있었다.

- 가) 재난 안전 시설 및 장비 개선: 콘센트 이용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점자표기 의무화. 가스 밸브를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와 부품 개선 필요. 재난 안전에 관한 정확한 점자 정보제공.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을 위한 점자 블럭 설치 규정 준수 및 상태 점검 정례화.

나)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 이용: 응급상황 시 경증장애인의 나비콜 이용 허용.

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생활 지원: 냉난방비 지원 정책 시행.

라) 재난 안전 매뉴얼 보급 및 훈련: 시각장애인 안전 확보를 위한 정기적 재난 안전훈련 필요.

4) 청각장애

청각장애의 경우 위험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음성정보나 소리를 인지할 수 없어, 그에 따른 염려가 컸다. 응급상황에 출동한 구급대원과의 소통도 어렵고, 병원 의료진과의 원활한 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 국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환경에 일상의 불편 또한 크다고 전했다.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에게는 아래의 제언들이 있었다.

가) 재난 안전 시설 및 장비 개선: 시각적으로 화재를 알리는 화재감지기를 분리된 실내 방마다 설치. 화재 등 재난 상황 시 스스로 대피할 수 있도록 실내 모서리에 야광 또는 형광 표식 부착. 가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스레인지, 인덕션 레인지로 교체하는 사업 시행.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스 누출 및 화재경고등 설치 지원. 주요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텍스트 정보 지원.

나)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 이용: 119 상담 시 수어통역사와 원활한 화상통화 지원 필요. 병원 의료진의 기본 수어교육 및 청각장애인 환자를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 지원. 청각장애 환자 진료 의료진의 투명마스크 착용 교육.

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생활 지원: 재난 상황 시 상황을 원만히 설명하고 소통할 수 있는 수어통역사 지원. 아파트 단지에서 단수 상황에 대한 방송과 동시에 문자 알람도 제공. 확진 장애인에게 영상 수어통역 서비스 지원. 자가격리 시 상시적 문자메시지 정보제공 필요.

라) 재난 안전 매뉴얼 보급 및 훈련: 청각장애인을 위한 재난 안전 매뉴얼 보급. 재난 안전 상황에 주로 사용되는 수어 교육 진행.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정기적 재난 안전 대응훈련 진행. 폭염, 폭설, 한파 등 날씨 관련 주요 정보를 문자와 수어로 수시 제공.

5) 언어장애

언어장애는 대체로 위험에 처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거나, 수어와 필담으로 전해도 100% 완벽히 이해하기 힘들 거라는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 청각장애와 마찬가지로 구급대원, 의료진과의 소통 우려가 커, 수어통역사 배치 의무화를 가장 크게 강조했다. 언어장애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에게는 아래의 제언들이 있었다.

- 가) 재난 안전 시설 및 장비 개선: 매몰, 침수 또는 안전사고 시 자신의 위치를 소리로 알릴 수 있는 경보기 지원.
- 나)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 이용: 구급대원 수어 교육 시행. 119 상담센터 및 병원에 수어통역사 배치.
- 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생활 지원: 감염병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사고로 인한 입원 시 원활한 소통을 위한 수어통역사 지원.
- 라) 재난 안전 매뉴얼 보급 및 훈련: 언어장애인의 재난 안전에 관한 매뉴얼 보급 및 대응법 교육.

6) 지적장애

지적장애는 재난 상황 대응에 관해 과도할 만큼의 반복된 교육이 필요하며,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교육 시 충분한 이해도를 확인하지 않고, 비장애인의 기준에 따라 일방적 설명만 진행될 경우 실제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재난 안전 캠페인 방송 등을 통해 익숙한 대응요령이라도 직접적인 훈련을 통해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례 교육 및 안전지식 점검으로 대응방안에 대한 인지 수준을 꾸준히 살펴야 한다.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에게는 아래의 제언들이 있었다.

- 가) 재난 안전 시설 및 장비 개선: 재난 안전설비에 관한 알기 쉬운 설명서 부착. 주요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생활 안전 키트 보급. 낙상사고 대비 비상벨 설치 지원. 공기청정기 지원 또는 구입비 지원 필요.
- 나)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 이용: 감염병 증상 시 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알기 쉬운 상담 전화 필요. 지적장애인을 대상 진단 및 치료과정에 대한 쉬운 설명 필요.

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생활 지원: 재난 상황 시 이불이나 의류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위생관리 지원 서비스 필요.

라) 재난 안전 매뉴얼 보급 및 훈련: 119 신고 방법, 소화기 실제 사용 훈련, 누전차단기 사용법, 지진 시 대피 요령, 수도 동파 방지법 등에 관한 교육과 반복되고 정례적인 재난 안전 대응훈련 필요. 지적장애인 가정의 정례 안전점검 실시. 지적장애인을 위한 쉬운 재난 안전 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7) 정신장애

정신장애는 지적 능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판단력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재난 상황 발생 시 안정적 대응에 이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약물 지원이 중단될 경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신장애 의료시설에 머무는 경우 잠금장치를 밖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화재, 지진 등의 재난 상황 시 자력으로 탈출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혼란한 상황에서도 최대한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안전훈련을 반복해야 한다. 정신장애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에게는 아래의 제언들이 있었다.

가) 재난 안전 시설 및 장비 개선: 외부에 잠금장치가 있는 시설이라도 재난 시 내부에서 열고 나올 수 있는 대책 마련. 자동으로 재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 지원. 생활치료시설의 복장 단일화 지양.

나)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 이용: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약물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지원체계 구축. 정신장애와 의약품 간 상관관계에 관한 올바른 매뉴얼 보급.

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생활 지원: 재난 상황 발생 시 휴대용 가스, 일상 용수 및 생수, 식료품 등의 지원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처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 정신장애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냉난방 설비, 공기청정기 등 지원.

라) 재난 안전 매뉴얼 보급 및 훈련: 화재 초기진화보다 신속 대피를 우선하는 안전교육 실시. 정신장애인 약물 긴급 지원에 관한 모의훈련 시행.

8) 신장장애

신장장애는 정기적 투석이 필요하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신장 기능에 더 큰 장애가 발생하거나 생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재난 상황에 따른 의료기관 접근 불가, 운영 중단, 코로나19 관련 이용제한, 투석 병상 부족 등 다양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 지역사회 의료시스템 전반의 능동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신장장애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에게는 아래의 제언들이 있었다.

가) 재난 안전 시설 및 장비 개선: 재난 상황 발생 시 안정적 투석 병상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 의료지원체계 구축. 정전 장기화 대비 예비발전시설 설비로 안전한 투석 치료 제공.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휴대용 비상벨 지원. 안전한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지원. 대피소 및 방공호에 신장장애인 투석 설비 구비.

나)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 이용: 신장장애인의 안전하고 원활한 투석 치료를 위한 응급 의료체계 개편. 코로나19 발열 증상과 신장장애 문제로 인한 발열 증상에 우열을 두지 말고, 생명과 직결되는 신장 문제부터 해결하도록 대처.

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생활 지원: 장애인의 재난 피해 이후 이재민 청소 및 복구를 돕는 지원 정책 필요. 정전 장기화 상황 대비 냉장고 음식 보관 서비스 지원. 재난 상황 발생 시 예비 식수, 휴대용 버너 등 지원.

라) 재난 안전 매뉴얼 보급 및 훈련: 신장장애인을 위한 재난 안전 매뉴얼 보급.

9) 뇌전증장애

뇌전증장애는 비정기적 발작 증세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따르는데, 재난 상황에 그러한 증세가 발생하면 위험이 커진다. 일상에서의 발작에도 뇌전증을 원인으로 한 증상이기엔 일정 시간 휴식과 안정만 필요하지만,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마비, 기타 응급상황과 혼동해 불필요한 의료검사가 강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뇌전증장애 안내 표식 부착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뇌전증장애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에게는 아래의 제언들이 있었다.

- 가) 재난 안전 시설 및 장비 개선: 뇌전증장애 가정에 화재, 가스, 전기, 수도 안전에 관한 정기 안전진단 필요. 공원이나 정류장 등 곳곳에 더위와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쉼터 설치. 공기청정기 지원 또는 구입비 지원.
- 나)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 이용: 뇌전증장애 119 신고 시 병원 후송보다 현장 지도를 통한 심신 안정화 우선.
- 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생활 지원: 단수, 가스 중단 대비 비상 식수와 휴대용 버너 지원. 가스레인지의 인덕션 레인지 교체 사업 진행. 재난 상황을 겪은 후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심리치료 제공.
- 라) 재난 안전 매뉴얼 보급 및 훈련: 뇌전증장애 발작 증세 대응에 대한 매뉴얼 보급으로 과도한 의료검사가 수행되지 않게 방지. 생존 수영 교육 시행.

라. 재난상황별 종합 분석

장애유형별로 12개 재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각각의 문제점 인식과 개선 요구안을 청취하고, 재난 안전 시설 및 장비 개선의 측면,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 이용의 측면, 재난 상황 발생 시 생활 지원의 측면, 재난 안전 매뉴얼 보급 및 훈련에 관한 측면 등으로 분류하였다. 15개 장애유형별마다 제시한 개선안 가운데 중복된 내용을 정리하여, 장애인 재난 안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들을 다음과 같이 표로 구성하였다.

〈표 49. 장애인 재난 안전을 위한 개선 과제〉

구분	개선점
재난 안전 시설 및 장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피난시설, 대피소 설치 - 전동보장구 이용자를 위한 비상용 발전기 지원 - 장애인의 손이 닿는 곳에 가스 밸브, 누전차단기 설치 - 가정용 화재경보기, 가스누출경보기 설치 - 투척형소화기, 산소마스크, 구급 키트 지원 - 휴대용 응급호출기 지급, 정전 대비 실내 야광 표시 부착 - 콘센트 접자표기 의무화 -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재경보기 지원 - 장애인 가정의 정기 안전진단 실시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구 이용 장애인의 응급상황 발생 시 보장구 동시 이송 - 경증 장애인 응급상황 발생 시 장애인콜택시, 나비콜 이용 허용 - 119, 병원 수어통역사 지원, 의료진, 구급대원 수어 교육 시행 - 정신장애인의 안정적 약물 지원체계 구축 - 뇌전증장애 119 신고 시 현장 지도를 통한 심신 안정화 우선
재난 상황 발생 시 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격리 중 원활한 의약품, 식료품, 문화생활 지원 - 자가격리 시 활동지원사 지원체계 구축 - 대피소 또는 방공호 장애인 편의시설 법제화 - 장애인 이재민을 위한 청소 및 복구 지원 정책 - 재난 상황 이후 심리치료 제공
재난 안전 매뉴얼 보급 및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별 재난대응 및 응급처치 매뉴얼 보급 및 교육 - 생존 수영 교육 - 장애유형별 응급상황 대응법 119 DB화 - 정기적 소방안전 점검 및 활동지원사 안전교육 시행 - 지적장애인을 위한 쉬운 재난 안전 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V. 중장기 로드맵 제언

1. 서울시 장애인 재난 안전에 관한 로드맵

가. 장애인 재난 안전 정책협의체 구성 : 단기

수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되고 매뉴얼이 제작된 이후에도 아직도 장애유형별 필요한 재난 안전 정보가 부족한 이유, 본 연구와 같이 장애인 재난 안전에 관한 문제점 분석이 이어질 때마다 늘 같은 통계의 언저리에서 맴돌지 않으려면 상시적 정책협의체를 조직하고 운영해야 한다.

재난 안전 정책 전문가와 재난 현장에서 안타까운 한계를 체감하는 응급구조사 및 의료진, 서울시 정책 담당 부서와 장애인 당사자를 구성원으로 한 ‘장애인 재난 안전 정책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서울시 모든 등록장애인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협의체 조직 및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와 예산을 책정하고, 25개 자치구의 정례 점검을 통해 도시환경과 주거환경, 방재시설과 개인안전 부문까지 점검과 개선을 이어가야 한다.

나. 주거 및 교통, 생활환경 전반의 장애인 재난 안전 실태점검 : 단기

서울시 등록장애인이 생활하는 주거 환경과 교통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에서의 재난 안전대응 정도를 파악하는 실태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주요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이 생명과 건강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장애인 당사자를 조사원으로 한 지속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장애인 재난 안전과 관련해 인사 사고가 발생한 구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반복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시설은 평가를 통해 포상하고 모범 사례를 확산시켜야 한다.

다. 장애인 재난 안전 의무교육실시 : 단기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자구력 향상을 위해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재난 안전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장애인이 생활하거나 일하는 공동 건물의 재난

대응 매뉴얼 배포 및 모의훈련을 갖도록 한다. 교육은 미디어 콘텐츠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교육,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쉬운 내용의 교육,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수어 등의 소통이 있는 교육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라. 정례 당사자 인식조사 및 시민 모니터링 시행 : 중기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재난 안전에 관해 가지고 있는 정례 인식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주요 재난사고 뉴스가 회자 될 때마다 관련 분야의 안전만 되짚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한 기본 지식 등을 환기하고,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상시 가동해 장애인 재난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와 참여율을 높이도록 한다.

마. 장애인 재난 안전 조례 제개정 : 중장기

현재 31개에 달하는 재난 안전 관련 조례 곳곳에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다소 녹아 있으나, 장애가 있는 서울시민의 재난 안전에 관한 단일 조례는 부재한 상황이다. 각종 자연재해와 생활 재난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재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31개 재난 안전 관련 조례를 비롯해 공공사업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모든 단위의 조직에 장애인해교육을 의무이행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표 50. 장애인 재난 안전을 위한 시계열적 과제 제시표〉

단기	중기	장기
장애인 재난 안전 정책협의체 구성		정책협의체 운영
생활환경 전반의 장애인 재난 안전 실태조사 실시		시민 모니터링 제도 운영
재난 안전 조례 보완	장애인 재난 안전 조례 제정	장애인 재난 안전 조례 제개정
장애인 재난 안전 의무교육	장애인 재난 안전 공모전 실시	장애인 재난 안전 교육원 운영

VI. 결론

1. 연구의 결론

재난은 특별한 예고 없이 찾아와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커다란 위협을 안겨 주고 간다. 그러나 어떤 재난은 사소한 대응으로 비극을 피할 수도 있고, 심폐소생술, 심장제세동기 같이 능동적인 대응법을 알고 있는 경우엔 불행 속에서 기적을 낳기도 한다.

재난이 세상 누구에게나 위협한 건 마찬가지지만, 이동과 소통에 제약이 따르는 장애인의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대응력이 부족하고 방법을 배울 곳조차 마땅치 않아 더 큰 불안함을 안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여러 통계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재난 상황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면,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그러한 현실에 불안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면, 이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응답할 차례이다. 일이 일어난 후에 문제점을 깨닫고 대처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의 관점보다, 수십 수백 번 살펴보고 고민하며 찾은 튼튼한 대안으로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바꾸는 방법은 아주 긴 시간 같은 과제로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나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처럼 매년 장애인 관련 기념일에만 반짝 관심을 기울이고 말아서는 안 된다. 이제 효율성과 비용을 따지는 후진적 논의는 멈추고, 더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과 조례 반영에 힘쓸 때이다.

본 연구는 연구의 주제인 ‘재난 상황에 따른 장애유형별 정책’을 다각도로 모색한 끝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며,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 본 연구 주제에 직간접적으로 관계하는 모든 이들의 관심과 실천을 기대한다.

가. 실내에서 발생하는 재난 상황 대응 시설

1)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건물 탈출 피난 기구 설치

화재, 지진과 같이 건물에서의 대피가 필요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2층 이상의 건물 상층부에 위치한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은 탈출할 수 없거나 탈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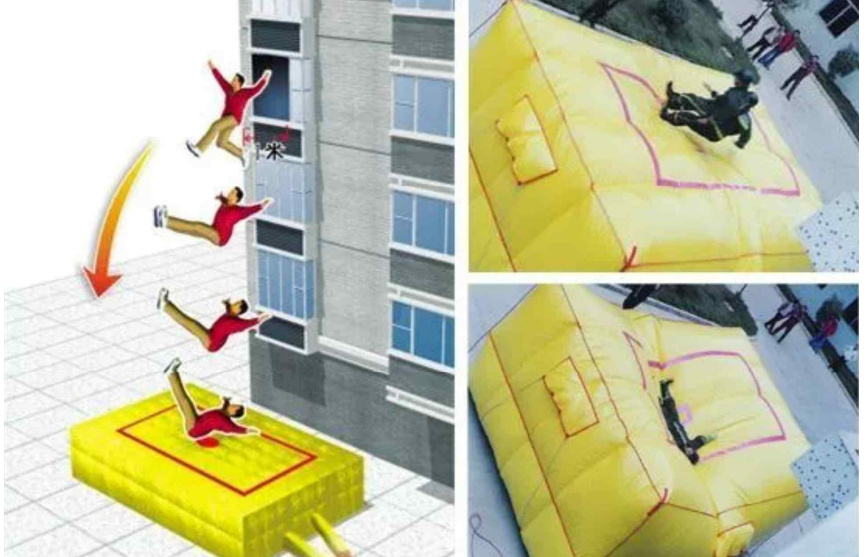
이 매우 어렵다. 비장애인들은 통상 엘리베이터를 통해 신속히 빠져나올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그와 같은 방법은 금지되고 있다. 엘리베이터는 화재와 지진 발생 시 불과 연기의 통로가 되고 붕괴, 고립의 우려가 큰 시설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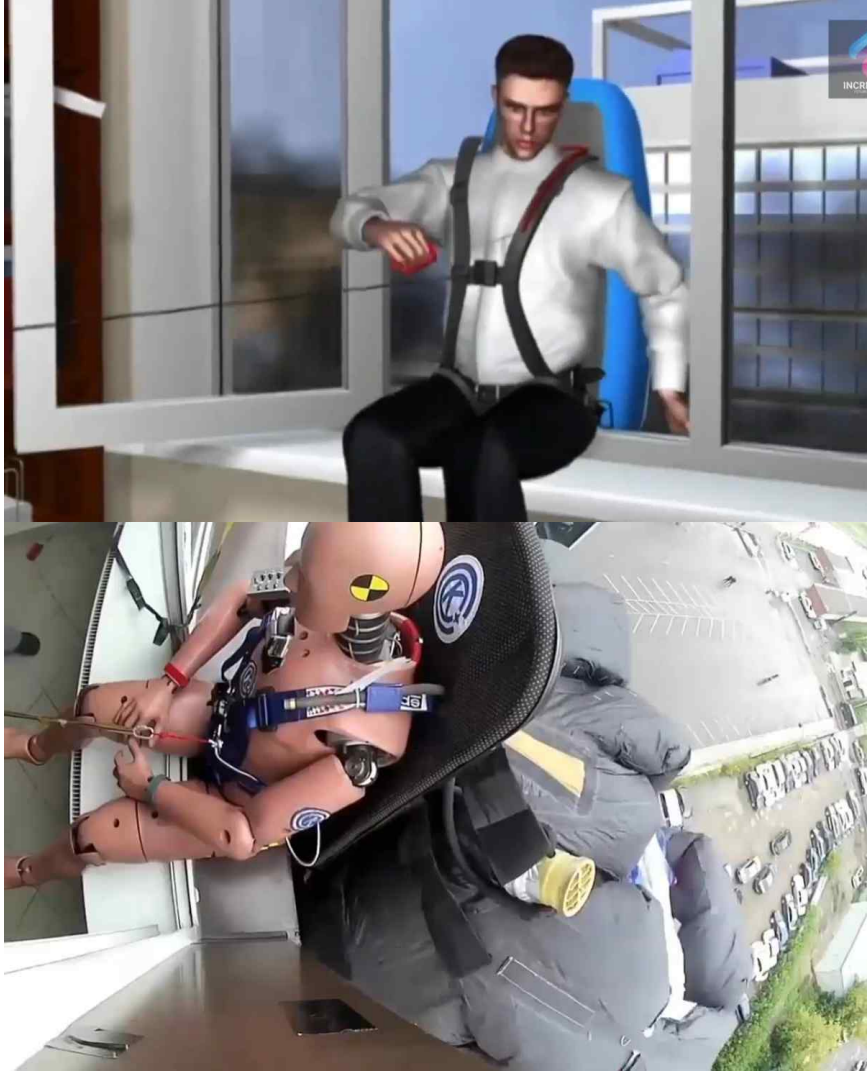
실제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 안전운영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제 2022-19호) 제17조에 따르면, '10. 화재 또는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제2조 관련)」에서 승강기를 용도에 따라 11가지로 구분하는데, 재난 상황에 대비한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와 피난용 엘리베이터 규정도 존재한다. 그러나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란 「건축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개념으로 구조나 재질의 차이 없이 31m 이상 건물에 기본 승객용 승강기와 별도로 비상용승강기를 추가 설치하게 되어 있는 단순 예비 설비를 말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난용 엘리베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에서 10층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써,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역시 건물 면적 대비 예비 설비 차원에서 설치된 승강기를 말하는 것일 뿐이다. 다시 말해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화재 및 지진 발생 시 승강기 이용은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기에 소방대원의 지도에 의한 것이 아니면 비장애인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부분의 고층 건물은 건물 중간에 화재 시 외벽을 통해 빠져나올 수 있는 비상계단, 사다리, 완강기 등을 설치해 대비하고 있으나, 이는 보행이 어렵거나 손과 근력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도 활용하기 어려운 시설이다. 최근 랙기어 또는 유압펌프의 구조를 가진 피난기구 등이 개발되어 안전설비로 고려되고 있지만, 안전성 논란과 함께 기립 자세로 이용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로 역시 장애인의 안전한 대피에는 제약이 있는 시설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 등 2층 건축물에 대응해 항공기 등에서 사용하는 '비상탈출 슬라이드', 4층 이하 저층 건축물(약 10m)에 대응한 '소방용 에어매트', 5층~10층 고층 건축물(약 30m)에 대응한 '공압 프레임 캐노피 디자인 낙하산', 초고층 건축물에 대응한 '탈출 슈트' 등의 의무설치를 제안한다.

〈표 51.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건물 탈출설비 제안〉

구분	종류	예시 및 운영 방식과 시설의 장점
2층 건축물	공압형 비상탈출 슬라이드	 <p>창문 외부에 설치되어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 시 공압으로 팽창, 전개되어 슬라이드를 통해 탈출하는 구조. (그림 출처: https://youtu.be/KoSalwe6E_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 플라스틱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슬라이드보다 마찰계수가 높아 탈출 시 가속도로 인한 부상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함 - 금속, 플라스틱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슬라이드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곳에 설치 가능 - 구분된 공간별 설치가 가능해 화재 발화지점, 지진 붕괴에 의한 탈출 경로 차단으로 고립될 우려가 적음 - 재난 상황 시 단순한 조작으로 전개 가능해 손과 근력에 장애가 있어도 조력을 받지 않고 탈출할 수 있으며, 창문 높이까지 올라설 수 있다면 누구나 안전한 대피 가능
4층 이하 저층 건축물 (약 10m)	소방용 에어매트	

		<p>건물 외부에 설치하여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 시 공압으로 팽창하여, 낙하 시 안전한 착지를 돕는 구조. (그림 출처: https://www.thefirstescape.com/tag/rescue-air-cushion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층 건물 화재 시 소방대가 반드시 현장에 가져가야 설치되는 탈출 기구이지만, 건축 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더욱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규정 강화 - 재난 상황 시 소방대원이 출동해서 작동해야만 전개되는 방식이 아닌, 해당 건물의 소방설비 관리자 또는 탈출이 필요한 사람이 비상벨 등 원격으로 직접 제어할 수 있는 방식의 설치 필요 - 야간 시 안전을 위해 반드시 소방설비 관리자의 책임 아래 이용하고, 정전 시에도 작동하는 조명 기구 설치 - 건물의 정기 소방시설 점검 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내구연한에 따른 관리, 교체 기준 마련
<p>5~10층 고층 건축물 (약 30m)</p>	<p>공압 프레임 캐노피 디자인 낙하산</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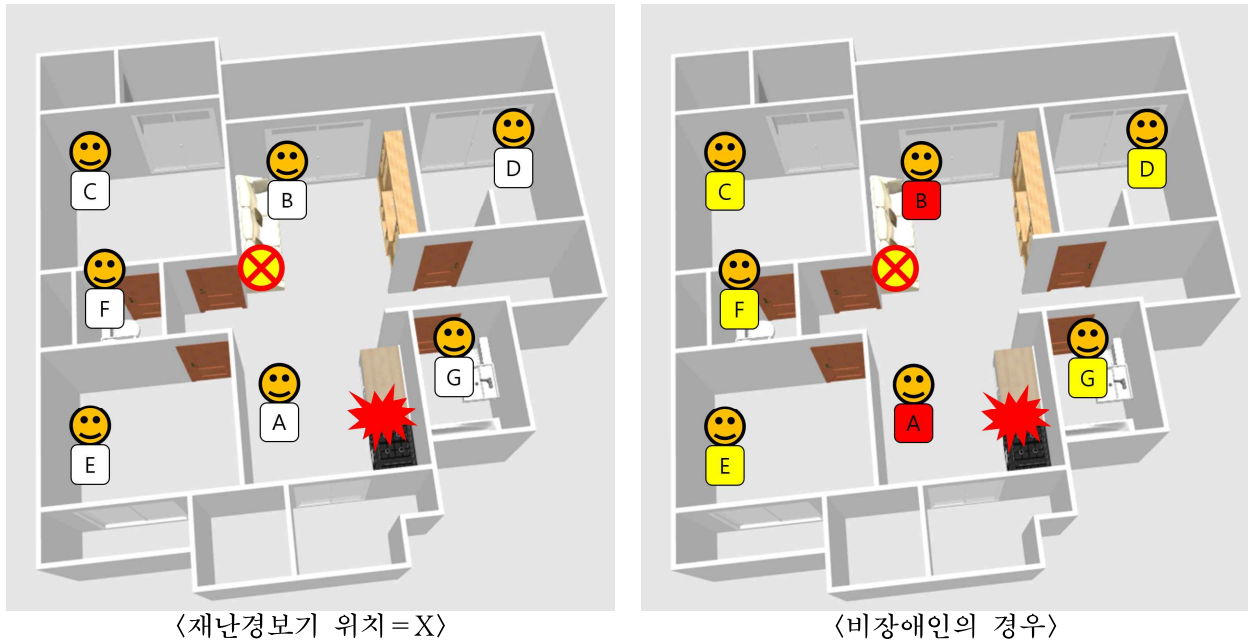
		 <p>등에 맨 기구에 공압 팽창을 일으키면, 접시 모양의 거대한 캐노피 프레임 안에 보호된 상태로 낙하산처럼 탈출하는 구조. (그림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PEWeR5PWhK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을 통해 탈출이 어려운 소수 인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지상 또는 건물에 위험요소가 없을 경우 빠르고 안전하게 탈출 가능
초고층	멀티 탈출 슈트	 <p>전 층에 일렬로 설치한 일렬 탈출구에 방열, 방염 기능이 있는 신축성 소재의 튜브를 설치, 튜브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자유낙하 원리에 의해 안전하게 지상까지 내려갈 수 있는 구조. (그림 출처: https://www.mobiltex.se/escape-chute-solutions/multi-entry-escape-chute-424085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대피시설인 완강기가 손과 근력에 장애가 없는 사람, 높은 곳에 위치한 완강기함을 여닫을 수 있고 도르래 작동이 가능한 사람

		<p>에게만 사용 가능한 시설이었다면,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외상환자도 누구나 탈출구에 들어가기만 하면 안전한 대피 가능한 시설</p> <p>- 주요 선진국에 이미 초고층 피난시설로 널리 설치되고 있으며, 설치와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고 다수 인원의 안전한 대피가 가능해 주목받고 있음</p>
--	--	---

2)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한 재난경보기 설치 규정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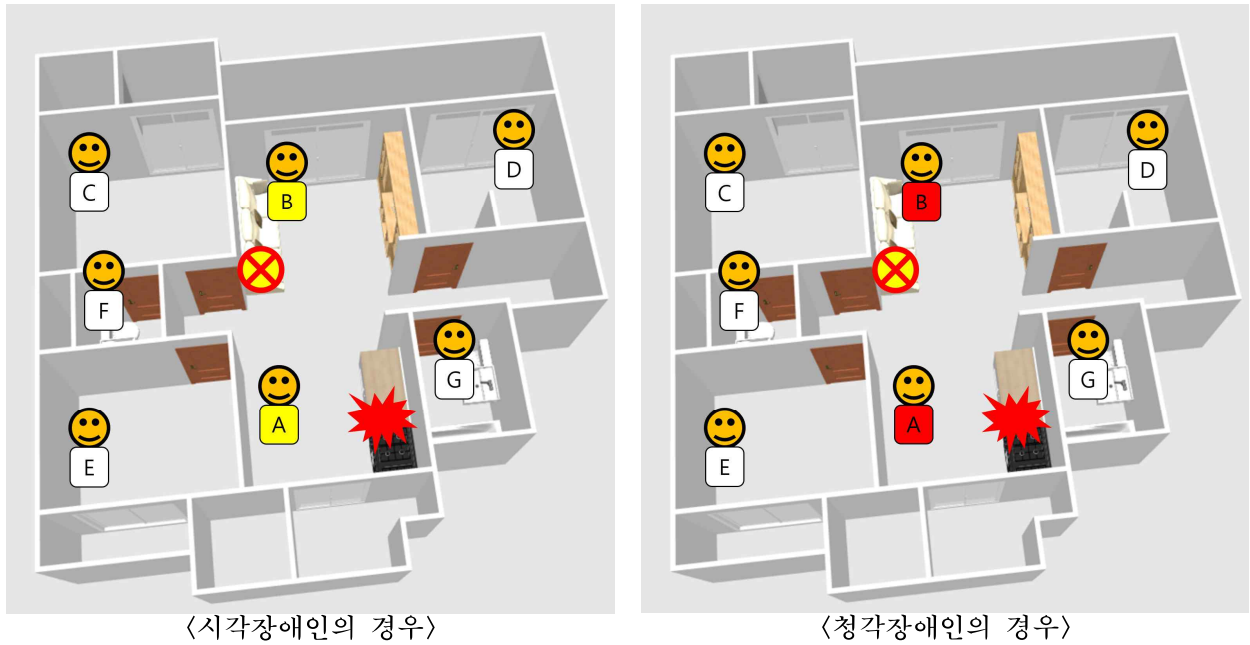
건물에서 대피가 필요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 또는 수동제어로 작동하는 재난경보기가 설치된 곳도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재난경보기는 시각, 청각을 통해 인지가 어려운 장애인들에겐 위험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 누구나 재난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경보기의 기능을 보완해, 다음과 같이 설치허가 기준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그림 14. 비장애인만 있는 일반 가정에서 재난경보기 작동 시〉



화재 및 가스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주방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기존의 재난경보기(그림상 X표시)는 재실 중인 사람들에게 경고등과 경고음으로 위험 상황을 알린다. 이때 주방의 A와 거실의 B는 개방된 공간에 있어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확률이 높으며, 다른 용무를 보고 있더라도 경고등과 경고음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다. 분리된 각 방에 있는 C~E, 화장실을 이용 중인 F~G는 경고등은 볼 수 없지만, 경고음을 듣고 대응할 수 있다.

〈그림 1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 재난경보기 작동 시〉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실내에 있는 모두 재난경보기의 경고등 빛을 인지할 수 없어, 만약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다면 불에 타는 소리와 냄새를 좀 더 일찍 알아챌 수 있는 A와 B 외에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다. 청각장애인의 실내에 있는 모두가 재난경보기의 경고음 소리를 인지할 수 없기에 만일 재난경보기의 경고등 빛만 작동한다면, 재난경보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의 A와 B 외에는 절대 상황을 인지할 수 없게 된다. 조금이나마 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난청 청각장애인의 경우 가청음역대가 다른 경우도 있어, 아무리 재난경보기가 크게 울려도 높은 음역대의 경고음을 듣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장애인이 거주하는 가정 또는 업무공간의 분리된 공간마다 재난경보기를 의무설치하도록 하고, 경고음의 음역대를 고음에서 저음까지 동시에 송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3) 재난 안전시설 보완 및 안전용품 기본 제공

가) 대피시설

재난 상황 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마련된 대피소 및 방공호는 대부분 지하에 설치된 경우가 많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

인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에 서울시에 설치된 모든 대피소 및 방공호의 장애인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전수조사하여,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 누구나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한 시설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다수 인원의 수용이 가능한 대피시설(지하철역, 체육관 등)에는 신장 장애인의 응급상황을 대비한 예비 혈액투석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호흡기보조기 등 전기 이용이 필수적인 장애인을 위해 소형발전기를 비치하도록 해야 한다.

나) 주택 및 공동 건물

화재로 인한 연기, 정전사고 시 암전을 대비해 실내 바닥 및 벽 모서리에 야광 또는 발광 표식을 부착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연기나 어둠 속에도 최적, 최단거리의 탈출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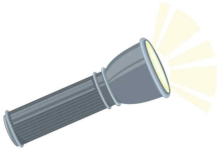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저신장장애인이 사는 주거공간의 경우 가스 밸브와 누전차단기를 낮은 위치에 재설치하는 지원이 필요하며, 가스안전 향상을 위해 가스 밸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다 명확한 잠금 표시를 의무화하고,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가스 누출 자동감지기 설치에 관한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가스를 연소시키는 가스레인지의 경우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등에 많은 위험 우려가 있으므로 인덕션레인지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및 전열 기구 안전을 위해, 콘센트에 안전한 점자 표시를 지원하고, 황사,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호흡기장애인 가정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상술한 재난경보기의 기능 강화(경고음 음역대 다양화) 및 의무설치(분리된 각방 설치)를 시행해야 한다.

다) 안전용품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안전 향상을 위해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한 안전용품을 기본 지급하거나 신청에 따라 선발 지급하도록 하며, 아래 제안한 안전용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해 정기점검 및 교체해야 한다.

〈표 52.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용품〉

종류	예시	장점 및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에게 효과적인 이유
구급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품 : 체온계, 가위, 핀셋, 면봉, 일회용 장갑, 삼각대 등 '의료 기자재', 붕대(석고붕대, 압박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등 '치료 도구', 소독약, 생리식염수, 알코올, 과산화수소 등 '드레싱 도구', 해열제, 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멀미약, 상처 연고 등 '상비약' - 주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용품 지급으로 재난 상황 시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자구력 강화
손전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및 정전사고 시 연기나 어둠 속에서 주변을 살필 수 있는 도구로 상황 대응 및 탈출에 사용 - 제2의 화재 위험이 있는 양초, 내구성이 약한 전구 형식의 손전등이 아닌 LED 형식의 손전등 보급
투척형 소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버를 벗긴다. ▲ 약제를 꺼낸다. ▲ 불을 향해 던진다.
스프레이 소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 3.3kg의 무게를 지닌 일반소화기는 손과 근력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이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와 무게를 가지고 있음 - 투척형소화기와 스프레이소화기, 소화기 공은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초기진압에 유용한 안전용품으로 화재로 인한 큰 피해를 미연에 방지 가능
소화기 공		
휴대용 비상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외 어디서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빠르게 119를 부를 수 있는 호출기 -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이 호출하면 119 안전신고센터에 장애 유형과 정도, 사용 보장구 등이 자동 전송되어 신속한 대응 가능 - 휴대형, 손목시계형, 팔찌형, 목걸이형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

<p>휴대용 산소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심한 황사,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기도 협착,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응급증상에 대응할 수 있는 휴대용 산소캔 - 천식, 근육질환, 뇌병변장애에 따른 경직, 뇌전증장애로 인한 발작 등으로 갑작스러운 호흡부전 발생 시, 호흡기장애로 인한 산소 부족 상황에서 임시대처를 할 수 있음
----------------	---	--

나. 장애인 당사자 및 지원 인력 대상 안전교육

1)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당사자에게 장애 유형에 맞는 화재 시 대피 방법, 전기 및 가스사고 시 대응방법, 가스 및 상수도 공급 장기 중단 시 생활 방법, 감염병 예방수칙 등 재난상황별 정기 안전교육과 모의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자구력 강화를 위한 생존 수영,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소방안전교육 등의 훈련이 제공되는 안전체험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을 의무화하여, 재난 상황 시 장애인 당사자의 자구력이 발휘될 수 있는 정책 실천을 지속해야 한다.

2) 시설종사자 및 활동지원사, 근로지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자하는 시설종사자, 활동지원사, 근로지원인, 장애인의 안전을 책임지게 되는 119 구급대원과 병원 의료진에게 장애 유형에 따른 재난상황별 대응방법을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교육 내용에는 지체장애인 중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장애인, 저신장장애인,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 그와 더불어 구조 및 치료과정을 쉬운 방식으로 설명해야 하는 지적, 자폐성장애인, 정기적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 카테터와 배변주머니의 위생이 중요한 장루·요루장애인, 비정기적 발작을 일으키는 뇌전증장애인 등에 필요한 장애유형별 유의사항을 세세하게 담아야 한다.

3) 기타 시민안전에 관한 모든 조직 구성원 대상 장애이해교육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 시민안전을 위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시민안전교육을 비롯해, 직간접적 지원 정책에 따라 조직, 운영되고 있는 재난안전기금, 시민안전과수꾼,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의용소방대,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지진재해원인조사단,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시민수상구조대 등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다. 장애인을 위한 원활한 재난 안전 정보제공

1) 장애유형별 매뉴얼 제작

각종 재난 상황에 따른 장애유형별 매뉴얼을 연구, 개발하고 정례 배포하여,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점자 제공,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 및 자막 제공, 지적장애인을 위한 AAC(보완·대체의사소통) 및 애니메이션 자료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장애유형별 재난대응 상담 제공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이 각종 재난 상황에 알맞은 대응이 가능하도록 장애 유형에 맞는 재난대응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청각장애인에겐 화상전화 또는 '손말이음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청각, 언어장애인 대상 실시간 통신중계서비스, 국번 없이 107)'를 통한 수어 상담을 진행하고, 지적장애인에겐 알기 쉬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전문가의 재난대응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라. 재난 상황 시 생활 지원

1)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추가 및 돌봄서비스 지원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 중인 장애인이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 신청 및 심사에 따라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에 추가 시간을 지급하고, 장애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나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부모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2) 코로나19 확진 시 생활 지원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인 재가장애인에게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신청에 따라 생필품 및 학습보조기 지원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특별급여 지급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정신장애인의 약물이 끊기지 않게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재난 피해 이재민이 된 장애인의 지원

재난 피해 이재민이 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복구 및 회복에 제한이 크므로 원활한 복구 및 빠른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별도 보상범위를 규정하고, 보상한도의 하한선을 두어 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화재보험 가입에 불이익이나 제약이 없도록 상담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마. 기타 장애인 재난 안전대응 관련 정책

1) 장애인 재난 안전 통계 항목 반영

서울시의 각종 재난 안전 통계에 장애인 분석 항목을 추가하거나 별도 구성하여, 장애인 재난 안전 통계 구축을 통한 관련 정책의 점검 및 개발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

2) 보장구 이용 중증장애인 응급상황 시 보장구 병원 이송 서비스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이 응급상황으로 긴급 후송되었을 때 구급차에 실을 수 없는 보장구를 사고 현장에 방치해 가족 및 경찰에게 맡기지 말고, 후송된 병원으로 함께 이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경증장애인 응급상황 시 특별운송수단 이용 허용

장애인콜택시 및 시각장애인 콜택시인 나비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증장애인이 응급상황에 처한 경우, 병원 이동을 위해 일시 예약 탑승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단순히 서울시 장애인의 재난 상황에 따른 장애유형별 하소연을 수집하기 위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줄곧 있어 왔고 이번에 총정리된 여러 요구가 실제 정책과 조례에 반영되어 장애인 당사자들이 안전한 삶을 체감하는 물꼬를 열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따라서 조례 제개정과 예산 수립, 정책 추진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과정이 기본 수행되어야 하며, 지속성과 발전성을 갖고 박차를 가해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법률상 학교, 기관, 기업 등이 1년에 1회 이상 이수하게 되어 있는 법정 의무교육 가운데 사회적 인식개선교육(장애인복지법상),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이 있다. 본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이 해당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해 인식의 폭을 넓히고, 장애가 있어도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안전한 도시에서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세상을 바꾸는 데에 함께 노력해 나아가는 결론에 닿아야겠다.

아울러 본 연구에 다뤄진 모든 장애인 재난 안전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안정적으로 진행, 관리될 수 있도록 서울시장 직속의 <장애인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움을 주신 자문위원회와 심층면접 참가자, 그 밖에 장애인 재난 안전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주신 많은 분의 의견이 서울시의 관련 정책과 조례를 통해 부족함 없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자료집 및 통계조사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컨퍼런스 자료집,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질환과 의료이용, 사망원인은?’, 2022. 4. 21.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2020)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통계연보(2015~2021)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2018~2020)

■ 언론기사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08&nttId=59719,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 강화된다’, 2017. 9. 24.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200629135848738040>, ‘재난 관련 통계, 장애포괄적으로 개선해야’, 2020.07.02.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722091732692706>, ‘청각장애인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수칙’ 수어안내 영상 배포’, 2020.07.22.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821081516548050>,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피난설비 세부기준 마련 권고', 2020.08.21.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Id=0036&NewsCode=003620200827094844520547>, '경기소방재난본부, 장애인 재난대응 애니메이션 제작', 2020.08.27.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Id=0014&NewsCode=001420201021131535196591>, '장애인 등 응급안전서비스, 인력난 심각', 2020.10.21.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Id=0052&NewsCode=003820201103175756690594>, '김천장북, 재가장애인 가정 전기안전점검 실시', 2020.11.03.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Id=0034&NewsCode=003420201230111126082138>, '청각장애인 위한 '응급상황 수어 안내서비스' 실시', 2020.12.30.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Id=0006&NewsCode=000620210112070811354021>, '어설피름과 과함이 공존하는 안전시설', 2021.01.14.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Id=0011&NewsCode=001120210126132715587473>, '안타까운 장애인의 화재 사망, 더 이상은 막아야 한다', 2021.01.26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Id=0014&NewsCode=001420210305154019793601>, '코로나19 1년, 드러난 장애인 사각지대', 2021.03.05.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

ryCode=0044&NewsCode=004420210521114648508148, '장애인 관련 법률안 8건, 본회의 통과', 2021.05.21.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10720145546270196>, '장애인 생명 위협, "방역 사각지대 방치 말라"', 2021.07.20.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6&NewsCode=003620210826102946939672>, '경기소방본부, 청각장애인 위한 3자 영상통화시스템 구축', 2021.08.26.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211111123458951465>, '휠체어 사용 장애인 피난승강기 드디어 개발', 2021.11.12.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20127113403080445>, '서울시, 청각장애인 500세대 '보이는 화재경보기' 보급', 2022.01.27.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28>, '[현장] '울진 산불, 운 없으면 죽을 뻔' 장애인 지원 매뉴얼 아직도 없다', 2022.03.09.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4&NewsCode=003420220316130841407465>, '장애인공단·소방청,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확대 운영', 2022.03.16.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20512090414301511>, "'지하철 안내방송 안들려요' 장애인들 발 동동', 2022.05.12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20616164053565486>, '장애인
피난설비 없는 공공임대주택 '차별'', 2022.06.17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4&NewsCode=003420220629085619662269#z>, '서울시,
맞춤형 콘텐츠 보급 등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확대', 2022.06.29.

■ 기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과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이상 'https://www.elis.go.kr/')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s://org.seoul.go.kr/org/orgChart.do>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s://fire.seoul.go.kr/pages/cnts.do?id=257>

서울안전누리, <https://safecity.seoul.go.kr>

(판권지)

서울시 장애인의 재난 상황에 따른 장애유형별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발행처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발행인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 김상인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입법조사관 도미화)

홈페이지 : <http://www.smc.seoul.kr>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층

전화) 02-2180-8147(보건복지위원회)

과제제안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기관 : (주) 필덤

책임연구 : 김영웅

연락처 : 02-432-9633

발간등록번호 : 51-6110100-000273-01

※ 본 학술연구용역보고서의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서울특별시의회가 해당 학술연구용역 보고서를 대국민 공개한 이후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음)